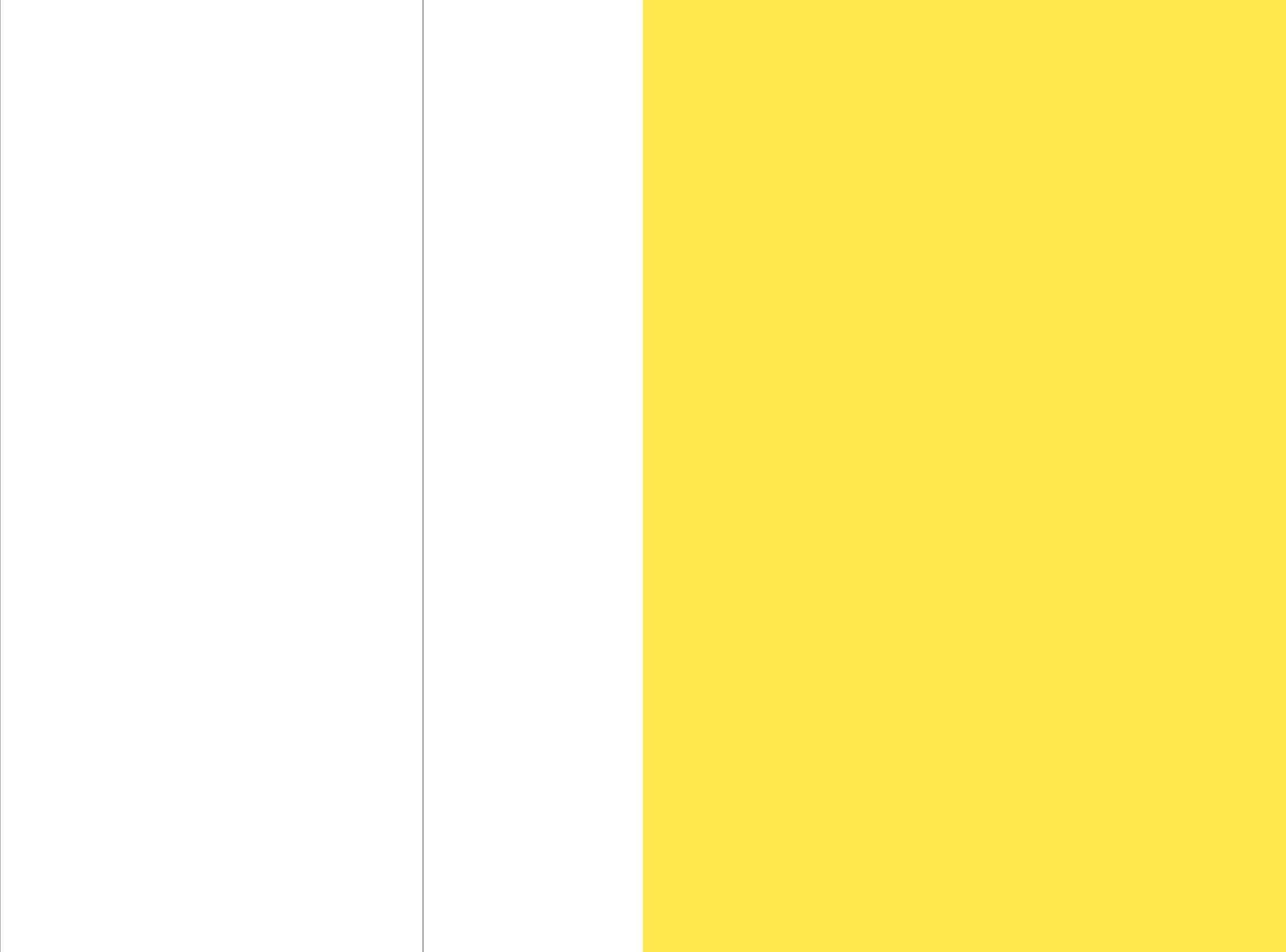


재난이후 정보(서비스) 격차 해소: 학교밖청소년 교육 지원





의제 가이드북

**재난이후 정보(서비스) 격차 해소:
학교밖청소년 교육 지원**

재난이후 정보(서비스) 격차 해소: 학교밖청소년 교육 지원

Contents

하나. 의제 이해하기

의제 소개

- 의제 추진 배경 및 목적 8
- 의제 실행 방안 9

의제 추진체계

- 추진체계 한 눈에 담기 10
- 의제 실행주체 12

셋. 의제 내다보기

- 의제 실행 성과 114
- 향후 의제 실행 계획 116

둘. 의제 진행 과정 파헤치기

의제 논의 과정 한 눈에 담기 16

논의 세부내용

-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의제 간담회 18
- 의제실행을 위한 협업테이블 84

의제 실행

- 학교밖청소년 배움의 연결고리 '위두랑' 100
- 학교밖청소년, IT를 만나다. 102
- 청소년, AI기술로 하나 되다. 106
- 대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위두랑' 클래스 개설 110

부록. 위두랑 미니 활용가이드(교사용, 학생용)



의제 소개

- 의제 추진 배경 및 목적
- 의제 실행 방안

의제 추진체계

- 추진체계 한 눈에 담기
- 의제 실행주체

하나. 의제 이해하기



의제 추진 배경 및 목적

코로나19 확산 상황 속에 교육계에도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전국 초중고의 개학이 연기되고 대면 수업이 어려워지면서 학생들은 언제 다시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가능할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초중고 모든 교육과정의 온라인 수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몇몇 지자체 및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육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재난 상황 속에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교밖청소년’들은 이러한 지원을 받기에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재난 상황 속에서 지원센터의 반복된 휴관에 따라 ‘학교밖청소년’들 역시 큰 교육 공백을 경험하였지만, 이들은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관련 서비스를 전혀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처럼 학교밖청소년이 제도권 내의 학생들과 동일한 교육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행정적인 협력체계의 미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을 지원하는 행정기관은 교육부, 여성가족부, 시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등 주체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 중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들은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소관이지만, ‘학교밖청소년’의 경우 여성가족부의 관할입니다. 같은 청소년이지만 학교 울타리를 기준으로 책임 소재를 달리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행정 구분 탓에 학교밖청소년들은 제도권에서 벗어나 있다는 이유로 각종 청소년 정책의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요즘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는 학교 안팎 청소년의 교육 격차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재난 상황 속에서 ‘학교밖청소년’들이 느끼는 교육 격차의 심각성을 인지한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대구청소년지원재단(대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은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에 「재난 이후 정보(서비스)격차 해소: 학교밖청소년 교육지원」 의제를 제안하였습니다. 해당 제안과제는 몇 차례의 검토 후 마침내 지난 6월에 개최된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의 집행위원회를 통해 선정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대구청소년지원재단(대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과 함께 본 의제 실행을 통해서 평소 학교밖청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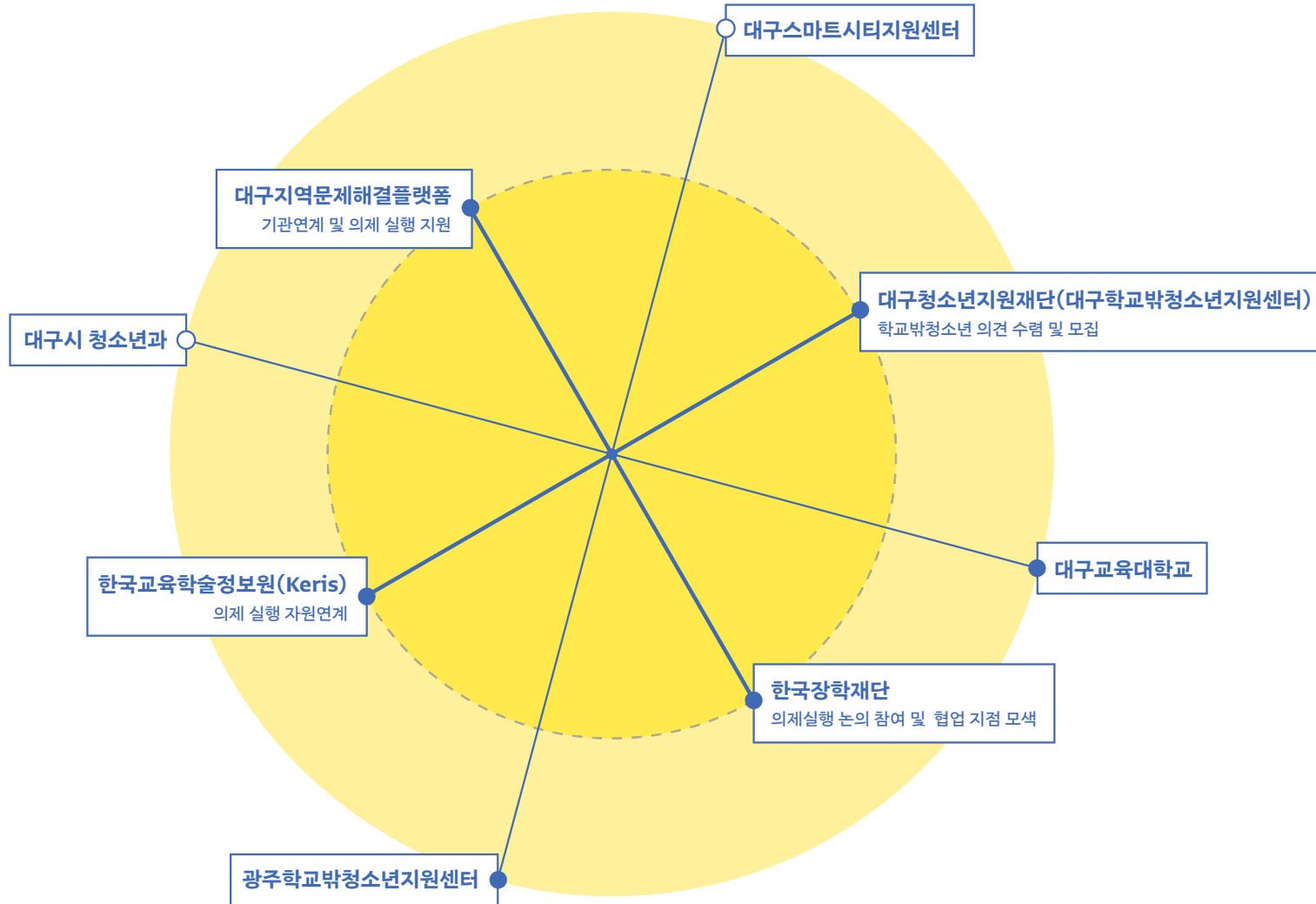
년들의 교육 콘텐츠 및 진로 경로에 대한 정보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재난 상황 속 학교밖청소년들이 경험하는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4차례의 간담회를 진행하였으며, 의제 실행을 실제로 추진하기 위해 9차례의 협업테이블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올해는 학교밖청소년들에게 온라인 교육 플랫폼 ‘위두랑’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학교밖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진로교육도 5회 실시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학교밖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반들이 다양하게 마련되어 머지않은 미래에는 학교라는 울타리를 기준으로 청소년들이 차별받지 않는 사회가 도래하기를 희망합니다.

의제 실행 방안

- 1 학교밖청소년 대상으로 진로지원 교육 서비스 제공**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꿈을 잇(IT)다’ 등의 진로체험 사업을 대구지역 학교밖청소년 대상으로 추진하여 진로지원 교육 서비스 제공
- 2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위두랑)의 이용대상 확대**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운영하는 온라인플랫폼 ‘위두랑’을 학교밖청소년들이 접속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여 다양한 교육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3 학교밖청소년의 체계적인 교육지원을 위한 커리큘럼 연구 및 제작**
 → 학교밖청소년의 체계적인 교육지원을 위한 이해관계기관 간의 협업논의 및 포럼 추진
 → 논의 과정을 통한 다양한 의견수렴, 교육 전문인의 자문 및 연구를 통해 학교밖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한 커리큘럼 제작

추진체계 한 눈에 담기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설립목적	교육 및 학술연구에 필요한 정보를 제작·조사·수집하고 교육정보제공체계를 구축·운영함으로써 교육 및 학술연구의 질적 수준을 높여 국가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
비전	사람 중심의 디지털 교육혁신 전문기관
주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교육정책 지원 • 초중등교육서비스(에듀넷, e학습터 등) 운영 •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운영 •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 K-에듀파인) 운영 • 교육기관 정보보호 및 인증 체제 운영 • 종합교육연수원 운영

대구청소년지원재단

(대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설립목적	꿈드림은 학교밖청소년에 관한 법률이 시행(2015.05.29.)됨에 따라 학교밖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학교밖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기관
비전	THE 나은 청소년 삶의 가치를 실현하는 통합플랫폼
주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지원사업 • 교육지원사업 • 취업지원사업 • 자립지원사업 • 건강증진사업 • 멘토링사업

한국장학재단



설립목적	학자금 대출 및 장학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의지와 능력만 있으면 누구나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육성에 기여
비전	학생들이 꿈을 실현하도록 도와주는 한국장학재단
주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자금 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등) 수행 • 우수학생 및 저소득층 국가장학사업 수행 • 인재육성지원 프로그램 운영 • 학자금 재원 조성을 위한 재단체 발행 및 운용 • 장학금 등 학자금 지원 재원 마련을 위한 기부금 모집, 관리 • 기숙사 등 학생복지 시설 등의 설치, 운영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설립목적	다양한 지역사회문제를 시민이 직접 제안하고 민·관·공이 협력하여 함께 해결하기 위함
비전	지역이 직면한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의 발굴과 해결을 위해 시민이 주도하고 공공기관과 지자체의 역량을 모아 함께 풀어갑니다.
주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오프라인 과제 발굴 • 의제실행지원: 과제심화·자원연계 • 의제협업주체 역량강화도모 • 홍보채널운영: 지역문제해결과정 홍보 및 인식확산



둘. 의제 진행 과정 파헤치기

의제 논의 과정 한 눈에 담기

논의 세부내용

-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의제 간담회
- 의제실행을 위한 협업테이블

의제 실행

- 학교밖청소년 배우의 연결고리 '위두랑'
- 학교밖청소년, IT를 만나다.
- 청소년, AI기술로 하나 되다.
- 대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위두랑' 클래스 개설





1단계 사업추진 방식 논의

- 지원대상의 이해
- 교육지원주제 토의
- 온·오프라인 지원경로 모색

1차 협업테이블

2차 협업테이블



2단계 사업추진 세부내용 논의

3차 협업테이블

4차 협업테이블



3단계 향후 방향성 논의

2020 대구시학교밖청소년 DREAM CONTACT 온라인 포럼
12월 17일, ZOOM&YouTube 생중계

7차 협업테이블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역량강화 워크숍
10월 15일, 대구스테이션센터

6차 협업테이블

5차 협업테이블

2020 ON-LINE “공존”의제 포럼
8월 7일, 화상회의

2020 대구사회혁신 컨퍼런스
8월 27일, ZOOM&YouTube 생중계

8차 협업테이블

9차 협업테이블

2020 ON-LINE 공존 의제 포럼

일시

2020년 8월 7일 (금) 14:00~15:30

진행

ZOOM 화상회의, YOUTUBE 라이브

참여자

6명

강근모(대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센터장)

손장호(대구교육대학교 교수)

김상운(한국교육학술정보원 선임전문원)

김도한(대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팀장)

박나연(대구시 청소년과 주무관)

김해인(대구 학교밖청소년)

기록자

유은정(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매니저)

18

19

2020 ON-LINE 의제 포럼
우리가 ON하는 대구
:공존

지역문제해결플랫폼
2020.08.07(금)
14시~15시30분

ZOOM 화상회의
YOUTUBE 라이브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참가신청 링크 | <https://bit.ly/공존의제포럼>

의제1. 동반의 관점으로 바라본 사회적 모성애	의제2. 무장애플랫폼: 교통약자 이동권 개선	의제3. 코로나 시대, 학교밖청소년 온/오프라인 교육지원
01 사회적 모성애란 무엇인가?	03 대구 무장애플랫폼의 HISTORY	05 코로나 시대의 학교밖청소년을 위한 이해
02 사회적 모성에 사업지원 방향	04 무장애 교통도시를 위한 시민참여	06 학교밖청소년교육지원 사업취지와 방향
아가씨윙합동조합 대표 김경애	(주)소리연 대표 이승욱	대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팀장 김도한
한국가스공사 사회공헌부 주임 한가영	대구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이은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선임전문원 김상운

발제기록

강근모 오늘 온라인 의제 포럼은 두 분의 발제를 먼저 듣고 진행자의 질문에 따라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여자분들께서는 질문사항이 있을 시 손을 들어 표시해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참여자분들은 채팅으로 질문을 주시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김도한 팀장님의 <코로나 시대의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이해>에 대한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제시 본인의 소개를 간단히 해 주시고 준비하신 내용들을 발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코로나 시대의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이해

김도한 안녕하십니까? 대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도한입니다. 학교밖청소년을 위한 사업을 잠깐 말씀드리고, 제가 생각하는 현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에 대해 말씀드리면, 꿈드림은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꿈을 키울 수 있는 청소년의 공간입니다. 이에 대한 사업 근거는 학교밖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고, 2014년 5월 28일에 제정되어서 2015년에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시행령, 시행규칙, 대구광역시 조례에 따라 진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의 세부 목표는 학업복귀와 자립지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학업복귀를 통해서 학업 동기 강화, 효과적인 학습방법 습득 등, 그리고 자립 동기를 통해 자립의지를 함양하고 경제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자기 적성 및 잠재력을 발견해 사회로의 진출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학교밖청소년 지원프로그램의 흐름도는 크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업복귀와 사회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힘든 청소년들에게는 상담지원을 하고 공부를 하고 싶은 청소년들에게는 교육 지원, 일을 하고 싶은 청소년들에게는 직업 지원, 재능을 펼치고 싶은 청소년들에게는 자립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대구에 총 9개 센터가 있는데요, 대구시 센터 1개와 각 구군별로 1개씩 해서 총 9개가 있습니다.

학교밖청소년의 개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밖청소년은 법률 상『청소년 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학교밖청소년 지원에 관한

20

21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밖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률상 청소년은 9세에서 24세인 사람을 말합니다.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정의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초·중등 교육법』 제 2조의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에서 제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모두 학교밖청소년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학교밖청소년이 현재 어떤 추이로 발생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인구와 연도별 청소년, 연도별 학업중단 청소년으로 나누어 보았는데요, 연도별 인구는 전국 인원과 대구 인원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전국 인원이 소폭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귀화자 등의 인원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면 대구에서는 인원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 퍼센티지는 2016년의 인원을 1로 잡았을 때 비율을 나타낸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연도별 청소년도 2016년의 인구를 1로 잡았을 때 전국이 2018년도에 0.95로 떨어졌고 대구가 0.93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학교밖청소년의 연도별 학업중단 비율을 살펴보면 2016년을 1로 보았을 때 2018년도에는 전국이 1.116, 대구가 1.029까지 올라갔습니다. 위 표를 통해 청소년 총인구수는 줄고 있는 반면 학교밖청소년은 계속해서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교를 그만둔 이유에 대해서 18년도 학교밖청소년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학교를 다니는 의미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부하기가 싫어서, 다른 곳에서 원하는 것을 배우고 싶어서 등등이 있습니다. 학교를 그만둔 경험 실태를 보면, 학교를 그만둔 후에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들이 학교를 그만두었다 하더라도 학습에 대한 욕구는 충분히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진로상담을 받는다는 대안학교를 다니고 심리 상담을 받는다는 것을 통해 진로에 대한 목표 역시 뚜렷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향후 진로 계획을 보면 진로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는 반면, 정규학교 복학이나 검정고시 준비가 두 번째 세 번째로 많이 나타나고, 취업예정이나 취업과 진학 병행의 비율이 그다음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학업복귀와 자립 준비와 일치하는 통계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밖청소년의 지원에 관해 코로나19가 발생한 후, 대구시, 구·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지원한 내용을 살펴보면 학습 지원으로는 유튜브 콘텐츠 제작과 유포, 모의고사 문제지 등을 우편으로 검정고시 학습 지원 등을 하였고, 인터넷 유료 강의 수강 지원과 1:1 화상 멘토링 역시 지원하였습니다. 온라인 학습이 어려운 청소년에게는 한국가스공사에서는 노트북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는 태블릿 PC 기기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립지원으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경제, 노동인권, 성폭력 예방,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알아야 하고 배워야 할 직업세계, 직업 관련 심리검사를 지원하였고 생활지원으로는 마스크, 손소독제, 비타민, 도시락, 농산물 꾸러미 등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배소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윤리실천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학교밖청소년에게 긴급 생계비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 톡 등을 활용한 정서지원 및 자기개발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학교밖청소년들에게 현재 상황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예전부터 이어진 고민과 현재의 고민이 합쳐진 부분이 있는데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중고생이 아니어도 대한민국 청소년이고, 대학생이 아니라도 대한민국 청년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학교밖청소년에게도 재학생과 동일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지원을 받고 싶어도 재학생, 대학생이 아니어서 복지 대상에서 당연하게 제외되는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젠 학습적인 부분인데 코로나가 발생하고 난 뒤에 학교에서 아이들이 등교하기 전에 온라인 학습 등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학교밖청소년은 학교를 다니지 못한다는 이유로 온라인 학습을 받지 못하고 단지 다른 기관이나 본인이 찾아서 학습을 한다거나 자립을 받아야 한다는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 같은 대한민국 청소년이기 때문에 다 같은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더욱 더 만나기 어려운 은둔형 청소년들에게도 온라인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학교밖청소년이 사회로 발을 내딛도록 도움을 주고 사회와 대면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저의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근모 귀한 발언 감사합니다. 김도한 팀장님의 발제 내용을 들으면서 가장 뜻깊었던 것은 학교밖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 둔 후에도 검정고시 준비를 하는 등

자신의 진로나 미래에 대해서 고민이 많지만, 코로나로 인한 교육격차 때문에 우리 학교밖청소년들이 교육의 기회를 적절하게 제공받지 못하였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발제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김상운 선임 전문원께서 <학교밖청소년 교육지원 사업 취지와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김상운 선임 전문원께서 본인 소개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어떤 곳인지에 대한 정보를 덧붙이면서 발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학교밖청소년 교육지원 사업 취지와 방향

김상운 안녕하세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김상운이라고 합니다. 제가 위치한 이곳이 사무실이 아니라 미래교육 체험관이라고 해서 3D프린터 등 미래교육 환경을 꾸며놓은 곳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많은 분들이 여기 체험도 해보시고 교육도 받으시는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운영하지 못하고 있지만 빨리 종식돼서 많은 학생분들 초대해서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 오늘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선정 의제 학교밖청소년 교육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함께 보여드리는 자료를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하오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 기관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교육부 산하의 출연기관입니다. 법 제 1조에 따라 교육 및 학술연구에 필요한 정보를 제작·조사·수집하고 교육정보제공 체계를 구축·운영함으로써 교육 및 학술연구의 질적 수준을 높여 국가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운영하는 대표 서비스로는 초·중등 교육정보 서비스 에듀넷 e학습터가 있고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riss, 교육행정정보 서비스 나이스, K-에듀파인, 정보공시서비스 학교 알리미와 유치원 알리미가 있습니다.

학교밖청소년 교육지원 사업에 대해 시작된 계기와 배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전례 없는 전국 단위 온라인 개학과 원격수업이 추진되었습니다. 한바탕 폭풍우 같은 한 한기를 보냈는데, 이런 한 학기를 보내면서 코로나19상황으로 학교밖청소년 등 제도권 밖 학생들이 학습할 자료나 학습할 기회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다른 변수에 따라 대면/비대면 교육에 병행은 언제든 가능한데, 따라서 온라인 교육 체계를 전담하는 공공기관으로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모든 학생들을 소외 없이

품어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학교밖청소년 교육지원이라는 의제가 만들어지기까지 기관차원에서는 많은 고민들이 있었는데, 무엇보다 고민이었던 것은 한계 부분에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배경지식 부족과 접근 채널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교육 수요나 희망사항에 대한 진정성 있는 정보를 얻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과 대구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여러 분야의 전문 기관과의 협업이 필요했고, 이에 따라 의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학교밖청소년 교육 지원 프로그램은 크게 두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첫 번째 영역은 오프라인 영역으로 학교밖청소년 진로체험·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내용은 학교밖청소년 대상 정보교육 격차 해소 및 진로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저희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추진 중인 ‘꿈을 잇(IT)다 SW·AI 스쿨 프로그램’ 사업과 연계하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의 교육 수요를 반영해서 코딩, 웹툰, 크리에이터 등의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됩니다. 본 의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러 기관들의 협업이 이루어져야만 했는데, 대구 지역 문제해결플랫폼은 물론 저희 원에서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측에서는 프로그램 수요 조사 및 참여 학생 모집·관리를 해주셨으며, 프로그램 운영 공간 등 환경 지원은 대구스마트시티지원센터에서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추진 규모 및 일정은 약 100여 명이며, 참여 수요 주사가 진행 중이며 8월 말이나 9월 초에 일정을 확정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으로 살펴볼 영역은 온라인 영역입니다. 학교밖청소년 온라인 커뮤니티 구성·운영입니다. 내용은 KERIS가 운영 중인 온라인 교육 플랫폼 위두랑을 활용하여 학교밖청소년의 학습 소통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그림 안에 위두랑의 클래스 화면이 있는데, 위두랑이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특정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그 안에서 이미지 여러 콘텐츠들을 주고받을 수 있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의제는 대구와 광주 간 협업과제로 진행되게 되고요, 지역의 공공기관, 교육기관들의 참여를 통해 커뮤니티 운영과 교육 콘텐츠 제작 및 대부분의 협업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올해 연말까지 과업이 구체화되고 교육 기반을 마련하도록 추진될 예정입니다.

학교밖청소년 교육지원 의제가 추진된다면 학교밖청소년의 진로 탐색과 학습 지원을 통하여 교육 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고 미래 사회 구성원으로서

24

25

학교밖청소년의 역량을 제고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지역 내, 지역 간 민-관-산-학 협업을 통해 지역 상생과 동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사업은 교육 혁신 실험으로도 이어질 예정인데,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전국 전략의제로도 제안되어, 학교밖청소년과 대안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양한 교수학습법 시도·적용하게 됩니다.

저희가 참여하고 있는 의제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참석자분들께 감사드리고, 첫 삽을 뜨는 의제인 만큼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의견 말씀 부탁드립니다.

강근모 귀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현재 대구에 있기 때문에 대구에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는 든든한 힘이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말씀하셨듯이 미래 교육 환경을 생각하시면서 모든 청소년들에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지로 학교밖청소년들에게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떤 지원들을 해줄까라는 고민을 해주셨던 것들이 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 온라인 교육 커뮤니티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부분인데,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발제해 주신 두 분의 내용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 각 개인들께 질문 드리면서 내용 공유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학교밖청소년으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김해인 청소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바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셨겠지만, 더더욱 귀한 시간을 내어 참여해 주신 김해인 친구에게 박수 한 번 부탁드립니다. 자기소개랑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학교밖청소년

김해인 안녕하세요. 저는 수성구 그리고 제가 지금 있는 대구시 꿈드림에 다니는 학교밖청소년 김해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학교밖청소년 당사자의 입장에서 교육에 관해 실제 학교밖청소년들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 왔는데, 이렇게 귀한 자리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경험을 이야기하자면, 올해 초 코로나가 심했을 때 꿈드림 뿐만 아니라 범어 도서관 등 여러 공공기관이 문을 닫았는데, 꿈드림이 범어 도서관 5층에 위치해있어서 2-3달 동안 센터를 이용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저랑 같이 활동하는 많은

학교밖청소년 역시 코로나 때문에 센터를 이용하지 못하고 그 기간 동안 지원을 못 받아서 불편함을 호소한 기억이 있습니다.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의 경우 학교를 가지 않더라도 체계 안에 소속되어 있어 관리가 되기 때문에 학교밖청소년의 경우 꿈드림센터 자체가 강제성이 있다기보다는 당사자가 필요할 때 와서 사용하고 떠난다는 이용센터라는 개념이 더 강해 강제성이 적어 체계적인 이용이 힘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당사자가 오지 않으면 꿈드림 센터의 지원을 받기가 힘들어서 특히 코로나 시대에 저희 같은 청소년이 적극적인 지원을 받기가 어려웠던 것 같고, 학교밖청소년의 경우 지속적인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활발한 커뮤니티가 없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모이지 않으면 사회에서 고립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코로나 때 더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교육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면 수성구 꿈드림 센터에도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언니, 오빠들이 많은데 만약에 코로나가 괜찮아지면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대생들이 와서 강의를 해준다든지.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지원을 받기 어려웠을 때는 EBS 같은 플랫폼에서 인터넷 강의를 지원해 주긴 하지만 집에 컴퓨터가 없는 친구도 많고 또 학교밖청소년들의 경우, 고등학교부터 안 다닌 친구, 중학교부터 안다닌 친구 등 수준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수준에 따른 맞춤형 강의를 해줘야 되는데 아무래도 학교 안 친구들에 맞춰 강의를 나오기 때문에 혼자 공부하기 어렵다는 친구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검정고시나 수능뿐만 아니라 아까 김도한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이라도 언제든지 학업을 재개하고 싶다는 마음이 충분히 들 수 있기 때문에 검정고시나 수능과 같이 시험공부 말고도 요즘 뜨고 있는 코딩, 웹툰, 크리에이터, 환경문제 등 요즘 시대에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문제에 대해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혁신적인 방식으로 상호 작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콘텐츠가 학교밖청소년들에게도 제공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접근성이 뛰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존에도 좋은 온라인 콘텐츠들이 많은데 그걸 학교밖청소년들이 잘 모르더라구요, 그래서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청소년이 직관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6

27

강근모 귀한 의견 감사합니다. 우리 헤인 학생이 이야기하는 게 본인의 의견일 수도

있지만 지금 여러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밖청소년들을 대변하는 위치에서 이야기해 주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듯이 학교밖청소년들의 사회적 고립이 많이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학교밖청소년들이 의지는 있지만 방법은 모르고, 뭔가를 하고 싶지만 정보도 부족하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중앙이든 어느 누구나 손잡고 챙겨주는 기관은 부족하고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잘 이야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귀한 분을 한 분 더 모셨습니다. 대구교육대학교의 손장호 교수님이십니다. 지금 학교밖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경험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지역문제해결플랫폼 등 다양한 기관들이 모여서 콘텐츠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들을 기반으로 학교밖청소년들에게 보다 현실적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어떤 부분을 보완하고 준비해야 하는지를 교수님께 여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 학교밖청소년을 위한 교육 서비스의 보완

손장호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김상운 전문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 원고에서 보충한 것이 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 우리는 한 번 더 머리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만드는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아이들이 무엇에 목말라하는가에 대해 우리가 좀 더 고민하고 가야 한다는 것.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도 호기심이나 흥미가 없으면 접근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민해야 합니다.

제가 준비한 원고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음을 다해야 한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듯이 이 말의 의미를 생각하면 청소년을 올바르게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에서 바로 상생, 공존 이런 부분하고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갈등의 연속인 이 사회에서 ‘공존’이란 주제를 가지고 특별히 그 안에서 학교밖청소년과 어떻게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는지 그 주제를 가지고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 아주 의미 있고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김도한 팀장님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교육 시장에서 학업을 하지 않는 청소년들을 우리는 어떻게 보고 있을가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왜 공교육 틀에서 벗어났을까? 이들이 진정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며, 지금 생활에서 아쉬운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귀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말씀드리면 상당수의 학교밖청소년들은 지금 생활의 아쉬운 점을 가지고

있다고 통계에서 본 것 같습니다. 졸업장을 받지 못하거나 교복을 입지 못하는 등 학생으로서의 권리가 없다는 것 등이 조사되었는데요, 이는 반대로 생각하면 이들은 공교육의 제도권 안에 있는 또래의 친구들과 같이 학생으로서의 의무와 권리에 대해서 동경과 아쉬움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학교밖청소년은 두 가지 이유로 공교육에서 벗어났는데요, 물론 상대적으로 좋은 교육을 얻기 위해 벗어난 학생들은 언급하게 않겠습니다. 첫 번째, 학교의 교칙을 어겨 퇴학당한 학생들이 있고, 두 번째는 학교생활에 대한 부적응으로 자퇴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의 아이들은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두 번째 아이들은 에너지가 낮은 아이들입니다.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아까 말했던 맞춤형하고도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연령도 9세에서 24세까지였는데 아마 중학교, 초등학교 마친 애들, 중학교 중간에 나온 애들 등 다양할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수의 기관에서 검정고시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학교밖청소년을 위한 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해 검정고시 내용도 들어갑니다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이들과 공감하고, 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연습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로는 ‘힘들지?’라고 하지만 마음은 안 그럴거든요. 내 새끼라고 생각하고 공감하는 태도가 첫 번째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봤을 때는 지역의 대학교하고 MOU를 체결하여 대학생들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른들보다는 대학생들이 학교밖청소년들의 입장을 잘 이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학생들이 어떻게 한다는 부분은 시간 관계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지역 대학과의 연계를 한 번 고민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 콘텐츠는 재미도 있어야 하고, 아이들에게 맞춤형도 되어야겠지만 또 한 가지는 지속적으로 개발이 되어야 합니다. 한, 두 번 만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관심을 가지고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저는 학교밖청소년 전문은 아닙니다. 다만 최근에 6-7년 정도 학교밖청소년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분들과 고민하는 중에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얻었는데,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발제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28

29

강근모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앞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 보면 수혜자인 학교밖청소년들의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고 이들을 공감하고 이해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그리고 사업 담당자나 관련자들도 이 부분을 노력하여 접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 대학과 연계하여 대학생들을 통해 다양한 공감의 소통 창구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콘텐츠에 대한 부분은 심도 있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플랫폼을 만들어서 콘텐츠를 탑재한다는 생각만 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민하면서 준비해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포럼을 마무리하기 전 발언했던 순서대로 한 명씩 돌아가며 소감을 발표하겠습니다.

소감

김도한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나누게 될 거라고는 생각 못 했습니다.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한 공감이 깊다는 것에 대해 감명받았습니다. 이런 마음이라면 학교밖청소년들도 크나큰 마음의 안정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뜻깊은 자리에 참석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상운 오늘 포럼에서 저희에게 도움 되는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의제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팀이나 착안점을 많이 얻고 가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저희가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합니다. 그러니 앞으로 저희 진행하는 거 지켜봐 주시고 조언이나 자문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해인 학생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희가 만나 볼 기회가 없어서 오늘 정말 고견을 듣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제한 내용에 대해 수혜자인 학교밖청소년 김해인 학생의 의견을 마지막으로 듣고 싶습니다.

김해인 우선 소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전문가분들이 학교밖청소년을 위해 신경을 써주고, 마음을 써주신다는 걸 피부로 느끼게 되어서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제넘은 발언일 수도 있는데 학교밖청소년을 지원하는 교육이나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해 이야기를 할 기회가 더 있으면 저 같은 학교밖청소년의 입장을 더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활동을 통해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소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 목소리의 힘이 약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분들께서는 저희의 이야기를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상운 선생님의 질문에 답하기 이전에 하나 여쭙보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친구들과 함께 청소년 금융교육과 같은 정책을 만들고 있는데 거기 제안을 쓸 때 확고한 데이터가 필요해서 논문 사이트에서 논문을 검색할 때가 많습니다. 당황스러웠던 것 중 하나가 논문을 검색할 때 기관 인증을 해야 되는데 꿈드림 센터는 기관 인증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꿈드림센터가 지원센터라는 인식이 크다 보니 교육에 대해서는 지원이 적은 것 같은데 제가 여태까지 만난 학교밖청소년들은 학업에 대한 열정이 확고하고 꿈이 큰 친구들이 많았으니 그런 친구들을 위해 교육지원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선 질문에 답해드리자면 아직 화면으로만 봐서 어떻게 실물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이야기한 것은 초반이기도 하고 만약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희 이야기도 들어주시고 이런 다양한 분들의 이야기를 수렴하면서 접근성 좋게 사용하기 재밌게 만들어 주신다면 학교밖청소년들도 기꺼이 감사하게 사용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30

31

손장호 훌륭하시고 열정 가득하신 분들과 함께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틀 전에 책을 보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가 미국의 세콰이어 길에 있는 2204살 정도 되는 84M 나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도 어릴 때는 급히 자라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 학교밖청소년들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뿌리를 올바르게 정착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이들이 뿌리를 올바르게 정착하여 세계 최고 큰 나무에 버금가는 큰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오늘부터 고민하는 게 좋은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강근모 다들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앞으로 학교밖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온, 오프라인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테이블을 만들어서 논의하면 좋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강근모였습니다. ¶



2020 대구 사회혁신 컨퍼런스

일시

2020년 8월 27일 (목) 14:00~17:00

진행

ZOOM 화상회의, YOUTUBE 라이브

퍼실리테이터

강근모 (대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센터장)

참석자

11명

이창건 (대구사회혁신가네트워크 대표)

박나연 (대구시 청소년과 주무관)

정진명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부장)

김상운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선임전문원)

김재희 (광주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센터장)

허세호 (달서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센터장)

성민정 (대전지역문제해결플랫폼 팀장)

이선영 (대구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팀장)

김해인 (대구 학교밖청소년)

한희수 (대구 학교밖청소년)

기록자

원동윤 (대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팀원)

유은정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매니저)

32

33

2020대구 사회혁신 컨퍼런스 대구, ON-LINE으로 접속하다
 2020.08.27(목) 14시~17시
 ZOOM화상회의 | YOUTUBE라이브
 의 제 실 행 선 언 식 행사 메인페이지 daegusocial.imweb.me

1부 2020 대구사회혁신포럼
 01 인터넷 지역의 사회혁신을 위한 정책
 02 주체당면 함께 이야기하는 with코로나 시국에 우리 우리는 새로운 영역에서 살아남을 방법과요? 우리의 당파는 지금 안전한가요? 지구를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03 미래연대 : 시민참여 미세연대 축적 및 도모 후 미세연대 저감

2부 2020 온라인 협업테이블
 04 무장애물결 : 무장애 교통도시를 위한 시민참여
 05 친환경차량 : 수소차 보급을 통한 교통약자 이동권 개선
 06 지역자신의 책임달성 : 유류공급 상황을 통한 옛날엔스 간담, 지역가능한 해결안 찾기
 07 청년사진관 또는 내.일 : 지역집값기 청년들의 프로토타입인 지원
 08 마을 방송국 확산 : 재난시기, 어둠을 잇는 마을방송 인프라 구축
 09 재난이후 정보(서비스)격차 해소 :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10 재난이후 사회적 고립 : 사업고용협동조합 설립
 11 도시 근교형 집이여 포용해 : 청년 집문제로 활용지원 및 도농상생

문의 :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사무국 053-243-9028 | 주최:주관 : 행정안전부 | 대구광역시 |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워크시트 정리표

<p>박나연 주무관 대구시 청소년과</p>	<p>‘재난이후 정보(서비스) 격차 해소’ 의제 실행을 위해</p>	<p>공공기관, 지역대학, 학교 밖 센터, 시</p>	<p>에서</p>	<p>교육지원시스템을 통한 디딤돌과 안전망 역할</p>	<p>(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p>
<p>히세호 센터장 달서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p>		<p>달서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p>		<p>온라인 꿈드림 센터 개설 온라인 꿈드림 센터는 소속과 인정의 욕구충족을 통한 자존감 향상을 위한 가상의 공간으로, 이 곳에서 학교밖청소년들이 각자 본인의 캐릭터를 생성하고 온라인 공간 속에서 필요한 정책 제안, 실무 경험 등을 해나갈 수 있음.</p>	
<p>김해인 대구 학교밖청소년</p>		<p>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학교 밖 지원센터 등 관련기관</p>		<p>청소년의 입장에서 수요조사, 접근성이 높은 콘텐츠 개발, 장기적으로 학교밖청소년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개설</p>	
<p>한희수 대구 학교밖청소년</p>		<p>대구시 교육청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p>		<p>온라인수업의 활성화 및 검정고시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 개설</p>	
<p>김상운 선임전문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p>		<p>한국교육학술정보원</p>		<p>학교밖청소년에게 기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참여 기회를 제공 학교밖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로나 학습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려고 계획 중.</p>	
<p>성민정 팀장 대전지역문제해결플랫폼</p>		<p>대전지역문제해결플랫폼</p>		<p>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p>	
<p>김재희 센터장 광주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p>		<p>광주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p>		<p>온라인 콘텐츠 개발 코로나19 상황 속 많은 학교밖청소년들이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며, 센터 또한 비대면으로 인한 한계와 문제점에 직면함.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실무자들이 온라인 콘텐츠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지역문제해결플랫폼에서 실무자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p>	
<p>이창건 대표 대구사회혁신가네트워크</p>		<p>대구 사회혁신가네트워크</p>		<p>새로운 화두를 중심에 둔 학교밖청소년 지식 공유 플랫폼을 조직 청소년들의 욕구에 기반한 정보자원 부족. 공교육의 콘텐츠를 활용하는 것보다 새로운 콘텐츠를 제작할 필요가 있음.</p>	
<p>이선영 팀장 대구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p>		<p>대구광역시 시민공익활동 지원센터</p>		<p>소통할 수 있는 관계의 연결 코로나19로 인해 관계의 단절에서 오는 심리적 위축감이 심화. 대구 시민공익활동 지원센터에서는 지역에서 공익활동을 하는 다양한 시민 또는 단체와 학교밖청소년들을 연결해야 함.</p>	

자유토론 내용 요약

제안

정진명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국민에게 오픈되는 콘텐츠나 저작물 등을 학교밖청소년들에게도 알리고 공유할 필요가 있음.

당장 학교밖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콘텐츠를 제작하긴 어렵지만 기존에 만든 자료의 공유를 시작으로 서로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가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함. 평소 학교밖청소년들을 접할 기회가 없는 기관들이 학교밖청소년들에 대해 학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마련된다면 이해의 폭이 깊어져 좋은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함.

제안

이창건 학교 교육법에서 벗어나면 국가가 새로운 교육 제공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학교밖청소년들은 국가로부터 새로운 교육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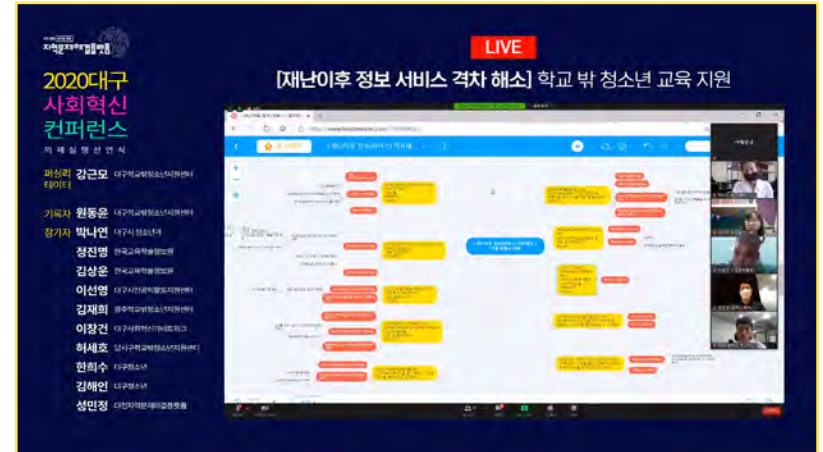
평생교육도시 등 평생교육과 관련된 기관들도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논의에 함께 참여시켜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36

37

의견

김재희 지자체나 관련 기관은 학교밖청소년들이 학교 밖 세상에서 배움을 이어가는데 목표를 두고 지원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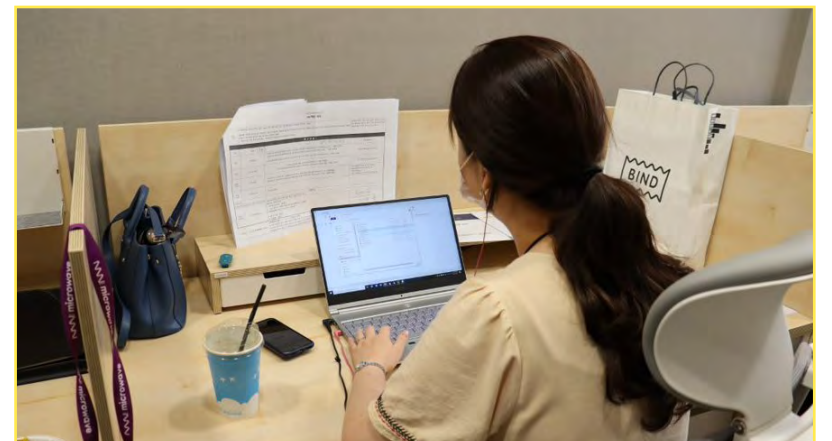


현장에서 기록한 워크시트



38

39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역량강화 워크숍

일시

2020년 10월 15일 (목)

장소

대구 중구 태평로160 대구스태이션센터 12층

참여자

- 6명
- 강근모(대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센터장)
- 오원교(한국장학재단 팀장)
- 정승이(한국장학재단 과장)
- 김상운(한국교육학술정보원 선임전문원)
- 양현아(한국교육학술정보원 연구원)
- 이은지(한국교육학술정보원 청년인턴)

기록자

- 이재찬(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선임 매니저)
- 유은정(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매니저)

COLLECTIVE IMPACT

Collective impact
다양한 이해관계주체가 특정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통된 목표를 두고 협업하는 것

문제정의

성과 지표 설정

WORKSHOP

2020 의제

1차 9:00 - 13:00

1. 사후적모니터링
- 용인과 운영으로 본 사회적 문제
2. 문제정의
- 시민참여 확대(지역주민 및 소외계층)역량 강화
3. 무언해결운동
- 무언해 운동으로서 위한 시민참여
4. 청년사회의 목소리 전달
- 사회적기업 청년들의 프로젝트 사업 지원
5. 마을 만들기 확산
- 재민시거, 이모작 같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구축

2차 14:00 - 18:00

6. 청년주거
- 대구형 청년주거문제 해결방안
7. 친환경 차량
- 수소차 보급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과 계인
8. 재민시거 청년(에이츠)역사 학습
- 재민시거 청소년 교육 지원
9. 재민시거 사회적 고물
- 사회적기업창업 지원
10. 도시근교형 주거에 효과적
- 청년 주거정책 활동지원 및 도농상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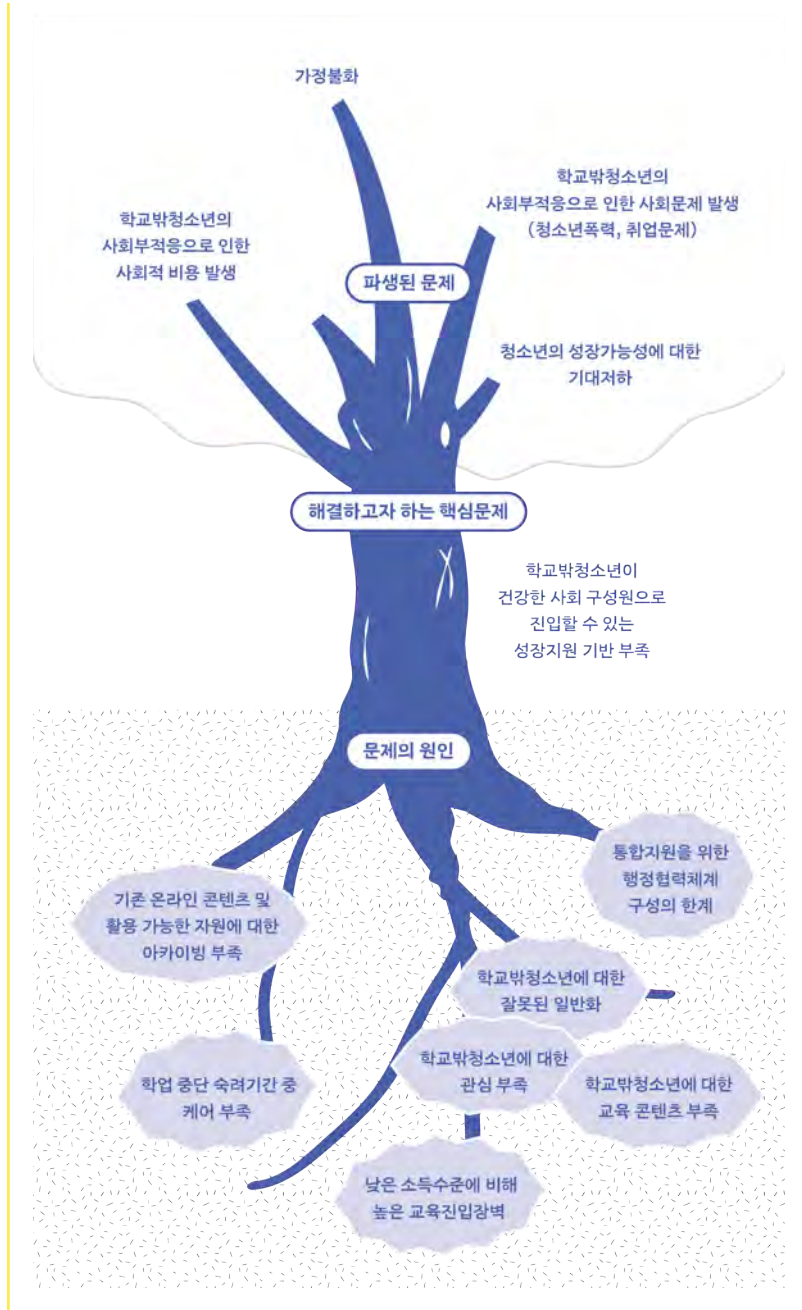
Timetable

1차 09:00 - 09:10	에이스프레미엄
2차 14:00 - 14:10	1. 구상된 역할 정하기 2. 워크숍 기대사항 및 이젠더에 관심 가져져 잘 계기 공유
1차 09:10 - 09:40	[강의] 문제정의
2차 14:10 - 14:40	1. 문제정의의 중요성(사례 및 소개) 2. 올바른 문제집근 방법 강의
1차 09:40 - 10:40	[강의+실습] 목표나무 그리기
2차 14:40 - 15:40	1. 목표나무 포맷을 활용하여, 문제를 여기하는 원인/핵심문제/확장된 문제를 확인
1차 10:40 - 10:50	Break time
2차 15:40 - 15:50	
1차 10:50 - 11:50	[강의+실습] 목표나무 그리기
2차 15:50 - 16:50	1. 목표나무 포맷을 활용하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목표/장출 가능한 일찍이를 확인 2. 현재 우리 팀이 진행하는 활동 조사, 목표나무 내용보완
1차 11:50 - 12:00	Break time
2차 16:50 - 17:00	
1차 12:00 - 12:50	[강의] PDM 이해
2차 17:00 - 17:50	1. 성과측정의 중요성 2. PDM 개념 및 활용방법 숙지 3. PDM 구성 이해하기(세로, 가로축)
1차 12:50 - 13:00	피유과
2차 17:50 - 18:00	1. 강제 안내 2. 참여자 소감 듣기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역량강화 워크숍
2020.10.15 (목)

오프라인 워크숍 진행 + 온라인 강의
1차 09:00 - 13:00
2차 14:00 - 18:00

문제나무 워크시트



42

목표나무 워크시트



43



44

45



2020년 대구시 학교밖청소년 온라인 포럼

일시

2020년 12월 17일 (목) 14:00~17:20

장소

온라인(ZOOM 및 유튜브 활용 비대면 온라인 스트리밍 방식)

주최/주관

대구광역시, 대구청소년지원재단 대구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참여자

11명

강근모(대구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센터장)

우장한(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국장)

손장호(대구교육대학교 교수)

김상운(한국교육학술정보원 선임전문원)

오원교(한국장학재단 팀장)

김미정(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부장)

허영철(대구사회적기업협의회 회장)

허세호(달서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센터장)

공정옥(대구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센터장)

박상준(대구청소년창의센터 꿈&꿈 센터장)

원동윤(대구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팀원)

기록자

유은정(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매니저)

46

47

DEAGU
ONLINE-FORUM
FOR YOUTH DREAM

DREAM CONTACT

학교 밖 청소년
온라인 포럼

2020.12.17(목) 14:00

유튜브 스트리밍 주소
<https://vo.la/olegb>

1 학교 밖 청소년 온-오프라인 학습지원 구상

우장한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사무국장
강근모 대구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센터장
김상운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선임전문원
오원교 한국장학재단 팀장
손장호 대구교육대학교 교수
김미정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부장
허세호 달서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센터장
대구시 공도림 청소년단

2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연계 진로체험 확장

강근모 대구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센터장
우장한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사무국장
허영철 대구사회적기업협의회 회장
공정옥 대구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센터장
박상준 대구청소년창의센터 꿈&꿈 센터장
원동윤 대구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팀원
대구시 공도림 청소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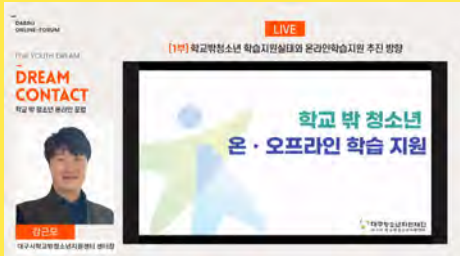
주최 대구광역시 주관 대구청소년지원재단 대구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후원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1부. 학교밖청소년 온라인 학습지원

1

학교밖청소년 학습지원실태와 온라인학습지원 추진 방향

강근모(대구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센터장)



48

안녕하세요. 대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센터장 강근모입니다.

학교밖청소년 온오프라인 교육지원 주제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학교밖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교육격차를 다루고,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제공할 수 있는 양질의 방안 논의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목적은 ① 학교밖청소년 교육격차, ② 학습 지원 실태, ③ 추진 체계, ④ 추후 과제 순서로 발표하겠습니다.

(1) 학교밖청소년 교육격차

먼저 학교밖청소년 교육격차입니다. 한국사회에서 교육격차는 IMF시기 때부터 심각해졌던 소득양극화로 인해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으로 전도되면서 부각되었습니다. 이때는 주로 계층 간의 격차, 지역 간의 격차를 다루며 교육결과에 대한 격차를 다루었지만, 현재는 보다 다양한 의미에서 교육격차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중심으로 정상적인 교육기회를 갖지 못하는 교육 소외를 해소하고자 교육 격차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고 자신에게 의미 있는 학습경험을 제공하여 잠재 역량을 최대한 개발하고 발휘할 수 있는 교육제공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학교밖청소년들은 학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받지 못하는 교육소외현상이 대두되었고,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교육소외로 인한 교육격차는 점차 심각해지고

49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특히 우리 지역에서는 학교밖청소년에게 공교육지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학교밖청소년이 겪고 있는 교육소외와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교육기관의 의지와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교육기관 혼자서 이를 수행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국가와 지역차원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실천공동체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오늘 다루는 학교밖청소년 온오프라인 지원이 유관기관들과 협력하는 모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출발점이라고 기대합니다.

우리지역에서는 코로나19로 올바른 교육지원을 받고 있지 못하는 학교밖청소년들에게 검정고시 학습지원, 모의고사 문제지 발송, 온라인 학습기기 지원 등을 대구광역시와 대구시 구군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제공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밖청소년들의 현실적인 요구를 충족시키기엔 한계점이 많았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들과 연계하여 학교밖청소년을 위한 온오프라인 학습지원을 구축하려는 노력을 시도하였습니다.

먼저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과 연계하여 플랫폼이 주체하는 포럼에서 학교밖청소년 온오프라인 교육지원을 의제로 발의하여 온오프라인 교육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협업기관 역량강화 워크숍을 통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장학재단,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과 함께 학교밖청소년 온오프라인 교육지원의 미래 운영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학교밖청소년에게 다양한 학습지원 및 진로체험을 제공하고자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의 도움을 받아 크리에이터, 코딩, 포토샵, 웹툰, 인터랙티브 AI등의 교육을 오프라인으로 실시하였고, 이를 영상으로 제작하여 온라인으로 학교밖청소년들에게 공유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장학재단과 연계하여 학교밖청소년의 직업역량강화를 위해 미래직업가와 소셜벤처기업가의 특강을 온라인으로 실시하여 미래변화에 따른 다양한 도전과 통찰의 확장을 도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제작할 다양한 콘텐츠를 탑재하여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활용하기 위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운영하는 플랫폼인 위두랑의 시스템 활용 교육을 실시하여 구체적인 온오프라인 교육지원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 학습지원 실태

지금까지 노력들은 학교밖청소년 온오프라인 학습지원의 기초적인 형태이기에 이를 지속가능한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들의 실천공동체로 만들어 운영할 수 있는 고용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부산시, 대전시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블렌디드 러닝을 모델로 삼아 우리 지역에 맞는 모형을 구축하고자 한다. 여기서 말하는 블렌디드 러닝이란 온오프라인을 통합한 지속적인 학습을 지원하는 형태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학습자의 학습스타일에 맞게 운영하는 효과적인 학습방법을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학교밖청소년 온오프라인 학습지원과 비슷한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지역별로 블렌디드러닝의 특징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형 블렌디드 러닝은 기초학력보장을 위해 사범대생과 퇴직 교원을 원격 학습 튜터로 역할 하도록 하고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을 통해 교사와 학생 간 상호작용을 시키는 2020 배움과 성장이 있는 블렌디드 수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토익, 토론 및 프로젝트 수업 중심의 역량중심 수업과 여러 교원이 운영하는 협력 수업을 의미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산형 블렌디드 러닝은 온라인 학습지원인 교육용 플랫폼과 온라인 학습관리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디지털학습기기를 설치하고 장소에 구분 없이 실제적 학습이 이루어지는 오프라인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학습공동체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전형 블렌디드 러닝은 자기 주도적 학습역량을 강화하여 학생들을 미래형 창의 융합형 인재로 양성시키기 위해 교사학습공동체 활동을 장려하여 수업 나눔 활동으로 협업문화를 조성하고 있으며, 학생과 학생, 학생과 교사, 학생과 콘텐츠 간의 상호작용을 확대하여 학생참여중심의 배움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50

51

하지만 서울형, 부산형, 대전형 블렌디드 러닝의 주 대상은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기에 학교밖청소년들에게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은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델을 토대로 학교밖청소년들에게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학교밖청소년 온오프라인 학습지원 모형을 만들어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향후 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과제를 실현시키기 위해 서울시와 성남시에서도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하나씩 설명 드리면 먼저 서울시 교육청에서 학교안과 밖 어디에 있는 배움은 평등하게 지원해야한다는 패러다임 아래 서울형 학교밖청소년 종합지원을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 동안 추진하는 중장기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밖청소년들에게 맞춤형 교육, 정서, 진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대학생 교육진로 멘토링단을 조직하여 지원인력으로 활용하여 민관학 협력체계를 마련하여 검정고시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는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시의 청소년 재단에서는 온&온 성남형 학습지원 시스템구축이라는 사업명으로 재단 소속시설을 이용하여 원격수업환경을 제공하고, 학습 멘토 지원을 통해 온라인 수업의 학습력을 높이고, 청소년 상담과 연계한

심리정서 프로그램 및 청소년 활동과 연계한 체험활동을 제공하여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블렌디드 러닝, 서울형 학교밖청소년 교육 지원, 온&온 성남형 학습지원은 코로나19시기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운영형태로 학교밖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학습요구에 맞춰 운영할 수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의 성공적 결과물을 토대로 우리 지역의 학교밖청소년들에게 보다 성공적인 온오프라인 학습지원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이자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3)추진체계

현재 우리 지역에서는 성공적인 모형을 만들어 학교밖청소년들에게 교육격차 해소를 돕고자 대구광역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장학재단, 대구교육대학교,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대구청소년지원재단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는 위두랑 플랫폼을 제공하여 소통 및 공유채널을 제공하고,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청소년 교육지원 장학금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 대학생들의 참여를 독려시키고 있으며, 대구 교육대학교에서는 학교밖청소년들의 수요와 요구를 조사하여 학습 콘텐츠의 기본 커리큘럼을 구상하고 있으며 대구광역시와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대구청소년지원재단은 여러 기관들과 협업하여 학교밖청소년 온오프라인 학습지원 실천공동체의 모형을 만들어 실행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실행시키기 위해 네 단계로 실천계획을 구상하여 학교밖청소년의 수요와 요구조사를 바탕으로 커리큘럼과 매뉴얼을 제작하고 이를 콘텐츠와 멘토링 사업으로 연계하는 온오프라인 학습지원을 구축하여 우선적으로 2021년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교밖청소년을 대상으로 효과성 검증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인 지역실천공동체를 모형으로 만들기 위한 MOU작업을 바탕으로 ‘대구형 학교밖청소년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4)추후과제

앞으로 남은 추후과제로는 대구형학교밖청소년온오프라인학습지원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모형개발이 필요합니다. 이는 지원네트워크를 학습으로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돌봄 지원, 문화예술지원, 상담지원, 진로 지원 등으로 확장을 염두에 둔다면 자연스럽게 학교밖청소년을 발굴하는 새로운 접근법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2부에서 다룰 학교밖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참여형 진로탐색과 병행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학교밖청소년을 위한 온오프라인 학습지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2

학교밖청소년 학습지원방향성과 제안

김상운(한국교육학술정보원 선임전문원)



안녕하세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김상운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2020년도 학교밖청소년 학습지원에 대한 성과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서 나가야할지에 대한 방향성과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

(1)KERIS(한국교육학술정보원)

발표에 앞서 저희 원에 대해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에 의거하여 각종 교육정보서비스를 운영함으로써 국가교육발전에 이바지하는 목적을 띠고 설립되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서비스는 대표적으로 초, 중고 교육정보 서비스인 e학습터,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 등이 있습니다.

(2)코로나19(COVID-19) 확산과 생활의 변화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 펜데믹은 우리의 행동의 양식에 변화를 촉진하였는데요, 재택근무가 되면서 근무형태가 유연화 되고, 비대면 회의와 모임, 언택트 방식의 소비양식이 일상화 되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단기적인 현상이 아닌 앞으로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뉴노멀 시대라는 새로운 시대상을 촉발시켰습니다.

교육 분야에 있어서도 뉴노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 19로 인해 전격 도입된 유례없는 전국단위 온라인 개학과 원격수업이 있었죠? 이러한 학기를 지나가면서 교육 분야에도 학습공간이 꼭 학교나 교실, 가정이 아니고 다양하게 온오프라인으로 학습공간이 확장되었고, 온오프라인의 방식으로 학습 방법

자체가 병행이 되는, 그리고 단순히 지식 전달이 아니라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의 향상을 목표로 한 교육의 뉴노멀 시대가 촉진되었습니다. 이러한 교육의 뉴노멀에 앞서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교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한 설문조사에서 70% 이상의 교사들이 원격 수업으로 인해 교육 격차가 생겼다고 인식하시고 계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극복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3)코로나19(COVID-19) 확산과 학교밖청소년의 생활

학교 안에서는 교육격차에 대해 논의하는 동안 제도권 밖이라는 이유만으로 학교밖청소년들은 더욱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학습지원이나 생활방역지원에서 소외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학교밖청소년들은 사회적 편견과 더불어 코로나 19라는 상황과 함께 더욱 고립될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 정신적인 위축이나 학습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희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대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함께 학교밖청소년들을 지원하고자 올해 다양한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53

(4)학교밖청소년 교육 지원, 그간의 성과

첫 번째는 학교밖청소년 진로체험, 교육을 운영입니다. 지난 10월, 학교밖청소년들이 교육받기 원하는 네 가지 과정에 대해 이틀 동안 간단하게 진로체험 교육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원에서 준비했던 시기술 기반의 융합교육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이 프로그램에서도 저희 학교밖청소년들을 모시고 시기술의 학습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고, 그 지식을 가지고 본인들이 모둠활동을 통해 학습하고 이것을 퍼포먼스를 통해 발표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신기술을 활용해서 교육학습을 하는 체험을 제공했습니다.

(5)학교밖청소년 교육 지원, 새로운 도전

제가 2020년에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생각났던 속담이 있습니다. ‘아이 한 명을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입니다. 이게 현 상황에 딱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학교밖청소년들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도 대구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대구교육대학교 그리고 저희 공공기관들이 다 손을 붙잡고 힘을 합쳐야 된다는 사실을 느꼈는데요, 그래서 저희 온라인 학습을 위해 모시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위두랑에 대해서는 진로체험 교육과정에서 시범으로 운영을

해보았습니다. 과제방을 통해 과제를 올리거나 설문조사를 통해 본인의 의견을 표출하고 의견을 수합하거나 의사소통을 통해 선생님과 학생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시범운영해보았고, 그 가능성을 확인해보았습니다.

이러한 과제를 경험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역의 다양한 기관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 프로그램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학교밖청소년들에게도 제공될 수 있도록 기관 간의 협업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학교밖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된 진로 체험이 일회성이라 효과를 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때문에 다회성, 다차시로 구성하며 명확한 목표를 두고 기획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례로 광주광역시 청소년삶디자인센터라고 ‘삶디자인센터’가 있는데, 그 곳의 운영프로그램 등이 다차시, 다수준으로 설정되어있어 좋은 선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온라인 플랫폼 기반으로 청소년 커뮤니티를 운영해야하는데, 이 커뮤니티를 운영하기까지 넘어야 될 산들이 많습니다. 수요파악을 해야 되고, 수요파악에 따라 커리큘럼이나 자료를 확보해야 되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러 주체가 자원을 투입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넘어야 될 산들이 많아서 제가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두 가지 정도 추천했는데, 지역대학생과 청소년 연계로 비대면 멘토링을 한다거나 청소년들의 수요가 높은 교육과정을 비대면 실시간 쌍방향으로 교육하는 방법이 단기적으로 이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KERIS는 모든 청소년들이 누릴 수 있는 교육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지역 사회와 함께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54

55

3

학교밖청소년 지원사업과 한국장학재단 사업연계방향

오원교 (한국장학재단 팀장)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에서 사회적 가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 팀장 오원교라고 합니다. 누구나 고등교육의 기회를 갖기 위한 학교밖청소년 지원사업과 한국장학재단 사업 연계방향을 주제로 6분간 말씀드리겠습니다.

(1) 한국장학재단 설립목적 및 근거

먼저 한국장학재단은 누구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고등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2009년에 설립된 교육부 산하의 준정부 공공기관입니다. 한국장학재단이라는 이름 때문에 민간재단과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저희는 공공기관으로서 대학생들에게 연 4조원의 국가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고 학자금 대출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한국장학재단 학교밖청소년 지원 필요성

한국 장학재단에서 학교밖청소년 지원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이유는 한국장학재단 설립에 관한 법률 1조에 의하면 누구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의지와 능력이 있다면 고등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한국장학재단의 설립목적입니다. 2009년 당시에 대학생들이 등록금이 많이 인상되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없다는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 때 한국장학재단이 설립되어 국가장학금 제도와 학자금 대출 제도를 만들어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작년부터는 일반 중고생들도 복권기금 장학금, 꿈사다리 장학금을 받게 되어서 대학생과 중고생까지는 장학금의 대상이 되었지만, ‘누구나’에 속하지 못한 학교밖청소년들이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고,

한국장학재단에서도 학교밖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밖청소년들은 학교를 관둔 것이지 학업을 관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초에는 대학생 중심의 학자금 지원을 시작하다가, 작년부터 중고생을 대상으로 꿈 사다리 장학금, 복권기금 장학금을 지원하기 시작했고, 향후에는 제도권 밖에 있는 청소년들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누구나, 제도권 내외 구분 없이 꿈을 실현하도록 학자금을 지원하는 한국장학재단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 한국장학재단 학교밖청소년 지원 방향

한국장학재단의 학교밖청소년 지원방향입니다. 본 그림은 여성가족부의 학교밖청소년 지원 사업에 관한 그림이 요약된 것입니다. 아까 김상운 선임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한 것처럼 지금 여성가족부 외에도 많은 기관들이 협업해 학교밖청소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검진 지원을 하고 있고, 국민체육공단에서는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있는데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우리 재단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인 학자금 지원 분야에서 협조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겠다고 생각하여 지원에 대해 세 가지 방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4) 한국장학재단 학교밖청소년 지원 3대 방안

첫 번째입니다. 먼저 학자금 지원제도 안내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학교밖청소년들의 사정이 다양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만약 경제적으로 집이 어렵거나 해서 대학 진학을 포기하는 친구들이 없도록, 대학을 진학하는데 본인의 의지와 능력만 있다면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대출로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음을 안내하려고 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학교밖청소년 대상 입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 때 대학교협의회에서 대학 알리미 사이트가 있다는 것이 안내되었는데, 내년부터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학교밖청소년들에게 경제적으로 어렵더라도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안내해서 그들을 지원하는 방향을 고민하고자 합니다. 원래 수능이 끝나면 저희 한국장학재단에서는 20만개의 브로슈어를 만들어 전국 고3학생들을 대상으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고3학생들은 그런 안내를 받았는데 학교 밖 학생들은 그런 안내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올해 처음으로 각 시도 꿈드림 센터에 브로슈어를 발송할 예정이고 처음으로 안내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향후 꿈드림 센터 홈페이지라든지 청소년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에 학자금 지원제도 안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대학생 멘토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청소년 교육지원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사실은 금전적인 문제입니다. 교육에 있어서도 돈이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아쉽게도 현재 한국장학재단은 법률상 대학생과 정규 초중고생만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처음에는 대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었는데 작년에 법을 개정하여 중고생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이번에는 학교밖청소년까지도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개정을 하고자 하지만 아직은 그러지 못해서 대신에 학교밖청소년을 지원하는 대학생 멘토에게 장학금을 지원해서 대학생들은 학자금을 받고 그리고 학교밖청소년들은 그 대학생에게 검정고시 등 각종 교육 지원을 받는 방식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올해 7월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MOU를 체결해서 관련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사회공헌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재단이 작년부터 대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협업해서 해외봉사활동 지원, 예체능 활동 지원 등의 사회공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5) 꿈드림 프로그램과 연계한 한국장학재단 지원 방안

꿈드림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방안인데 교육지원 분야에 있어서는 학자금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꿈드림 멘토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자립지원 분야에서는 문화, 예술 봉사활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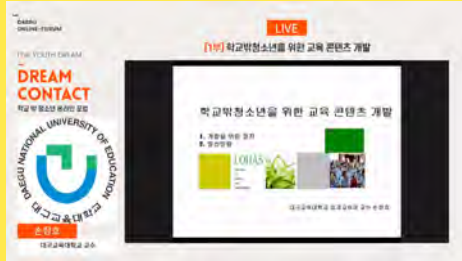
(6) 향후 과제

향후 과제입니다. 한국장학재단 설립에 대한 법률을 살펴보면 현재는 대학생화 초, 중등 학생만 지원할 수 있는데 향후 학교밖청소년까지 장학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률도 개정되어야 하고, 예산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여성가족부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도움을 주신다면 학교밖청소년들에게도 직접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것을 향후 과제로 남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4

학교밖청소년을 위한 교육 콘텐츠 개발

손장호(대구교육대학교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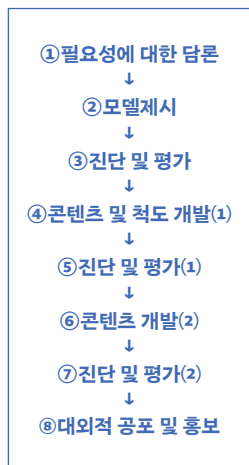


안녕하세요. 대구교육대학교 손장호입니다.

앞서 강근모 센터장님이 말씀하실 때 대구교육대학교의 역할에 대해 말씀해주셨는데, 대구교육대학교가 어느 정도까지 힘을 합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립대학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근본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교밖청소년을 위한 교육콘텐츠 개발에 있어서 개발을 위한 절차, 발전방향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58

(1) 교육콘텐츠 개발을 위한 절차



교육콘텐츠 개발을 위한 절차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공부하는데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설익은 답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서울, 부산, 대전에서는 블렌디드 러닝이 진행 중입니다. 앞서 발표하신 것 중에 대구형 학습지원 모형 개발 부분이 상당히 와 닿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만들어야 대구형이 되고 여기에 관여했던 모든 분들이 큰 보람을 느낄 것이라 생각합니다.

① 우선 필요성에 대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 번 모임에서도 했었고, 오늘도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59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며, 또한 이들을 위한 건강과 자존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과 관련 지원이 필요합니다.

② 그 다음에는 교육 콘텐츠 부분에 국한되어 볼 때는 어떻게 가야될지에 대해 분명한 모델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앞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모의고사 문제 등을 전달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 나름대로 간다면 분명한 모델명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검정고시를 생각해보면 EBS를 활용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학생들 수준에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 제시가 되어야 합니다. 모델 제시는 방향성의 명료화로 어떻게 할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③ 진단 및 평가도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 상태에서 연령대, 성격, 진로 등에 따라 학생들이 추구하는 것을 파악하여 맞춤형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④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면 교육 콘텐츠와 척도가 개발되어야 합니다. 교육 콘텐츠는 기본적으로 선택과 집중으로 이루어집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단계별 수준을 고려하여 콘텐츠를 제공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콘텐츠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 검증되어야 합니다.

⑤ 그리고 또 다시 한 번 진단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결국 콘텐츠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효과성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속도가 필요합니다. ⑥ 관련해서 콘텐츠 개발이 한 번 더 기존 보다 더 보완되는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⑦ 이후 이 콘텐츠가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고 난 다음에는 ⑧ 대외적으로 공포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고생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을 대외적으로 알릴 필요도 있고, 특히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구형’이라는 부분도 이 단계에서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분명한 것은 신뢰성과 효과성을 보장하는 교육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고, 지속가능성이 필요한데 지속가능성은 함께 할 사람이 어떤 사람이나, 길을 알고, 보여주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분들이 같이 가야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2) 교육콘텐츠 발전 방향

다음은 교육 콘텐츠의 발전방향입니다. 첫 번째, 교육을 위한 준비단계입니다. 이건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학교밖청소년들의 정신적 또는 생활적 부분을 고려해서 미래의 사회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교육지원이 필요하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연령이나 성격, 진로를 고려한 수준별, 단계별 맞춤도 필요하고 그리고 개인적 흥미와 교육적 흥미를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지역사회와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작업들이 여러 번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까 한국장학재단이나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같이 행/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지역 유관기관의 동참도 필요한데 이는 사회공헌사업 등으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한 예시부분입니다. 개인적 흥미와 교육적 흥미가 함께 고려된 맞춤형 교육 콘텐츠 개발이 분명 필요합니다. 그리고 온/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교육기관의 자원 활용 역시 필요합니다. 교육기관도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고, 말씀하셨다시피 멘토 대학생들을 활용하여 이들과 같이 길을 알고,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많이 모임으로써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60

61

5

학교밖청소년 온라인 학습지원
김미정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부장)



안녕하세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김미정입니다. 시작에 앞서 소개를 드리고 싶은 건 저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전국에 여러 기관들과 같이 일하고 있는데요, 저희 학교밖청소년 지원부는 전국의 219개 꿈드림 센터와 일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선진적인 모형을 개발하고 고민하고 계시는 대구시 꿈드림센터와 여러 유관 공공기관들 그리고 여러 대구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좋은 모델을 만드셔서 저희 학교밖청소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니 앞으로 좋은 모델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참가하신 모든 분들에게 먼저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발표는 전국의 학교밖청소년의 현황과 그리고 교육에 대한 요구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진행한 점, 기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1) 학교밖청소년 발생현황

청소년 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학업중단율과 학교밖청소년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2) 학교밖청소년의 교육·학습 관련 요구와 수요

다음은 학교밖청소년의 교육과 관련하여 요구가 얼마나 있는냐는 점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저희 전국의 꿈드림 센터에서의 성과를 소개한다는 것도 앞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교육과 관련된 서비스 건수들을 전산망을 통해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여서 휴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추정치를 봤을 때는 전년을 뛰어넘는 성과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휴관이어서 다른

분야들은 지원을 못한 경우도 있는데, 교육에 대한 욕구가 올라가고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이 참 아름다운 것 같은데요, 검정고시 합격인원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학교밖청소년들은 학업중단이라는 말을 불편해합니다. 학교를 그만둔 것이지, 학업을 그만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검정고시는 아이들이 사회 진출하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 중 하나는 대학 합격 인원 증가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문화가 반영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점들을 토대로 봤을 때 저희가 코로나 상황에 교육과 관련된 지원을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3)2021년 학교밖청소년의 온라인 교육·학습 관련 지원과 공급

다음은 올해 저희가 온라인을 통해서 교육과 관련된 어떤 지원을 하였는지 공급적인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 학습 지원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데 앞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ebs 수강권이나 온라인 수강권 지원을 많이 활용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저희 아이들은 국가예산에서 공교육에 있는 학생들의 5%수준만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온라인 학습을 지원한다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저희 센터의 선생님들이 온라인으로 스마트 교실, 검정고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그나마 온라인 학습프로그램들이 더 많이 추진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재부의 도움을 받아 공공기관들의 유휴 pc를 어렵게 반환해서 한 500여대를 저희 센터로 보냈는데, 저희가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로는 500여대를 보낸 곳에서 200명이 넘는 아이들이 검정고시를 합격했고, 자격증 취득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4)대구시 학교밖청소년 온라인 학습지원

다음은 대구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디자인에 대해 저희가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실무자 입장에서 몇 가지 점검사항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학교밖청소년들 중 저소득층은 인터넷 사용에 대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마 온라인으로 학습을 하다보면 안정적인 인터넷 사용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사실 일번이 되어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휴대폰을 사용하게 되면 문자나 톡이 들어오면서 중단되거나 방해되는 요인들이 있어서 가능하다면 기자재들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일대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한 강점은 저희 청소년 수준에 맞춤형으로 하려고 하면 채널이 쌍방향으로 소통이 잘 되거나, 청소년들이 이용하고자 할 때 잘 전달되는 게 확인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충분히 준비되어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개별 공간이나 사적인

공간을 굉장히 필요로 하기 때문에 배경화면 처리가 되어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 잘 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언급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멘토들이 학교밖청소년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온라인으로 사실 진행되는 것이긴 하겠지만 온오프라인이 병행된다고 이해는 하는데 저희 학교밖청소년들이 멘토하고 수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로 상담을 받거나 정서적인 지지를 받는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단순히 학습적인 차원을 지나 제고해보는 것이 어떨까 제안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센터에 오면 자료를 안 가져왔을 때는 복사를 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서류를 주는데, 집에서나 온라인으로 진행했을 때는 학습 환경이 잘 되어있는지도 검토했으면 합니다.

(5)온라인 꿈드림 개방형 플랫폼 시스템 안

저희가 5월부터 저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고민하고 있는 개방형 플랫폼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이디어가 될까 해서 공유해드립니다. 저희가 온라인 꿈드림 센터를 만들어보는 게 올해 저희의 희망이었습니다. 예산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아직 적극적으로 추진되지는 못하는 상황이고요, 온돌로지를 기반으로 한 학업과 자립을 지원해서 여기에 보면 저희가 학업과 자립, 권리 옹호를 지원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영상과 자료를 탑재해서 학교밖청소년이면 누구나 들어와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희의 생각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온라인 원격교육을 지원하는데 저희 센터들이 다양한 채널을 쓰는 것이 아니라, 구축된 꿈드림 센터로 들어오면 누구나 무료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실시간 멘토링이나 입시설명회, 직업인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들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학교를 그만두면 바로 센터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온라인 꿈드림 센터로 들어오면 궁금한 점들을 물을 때 챗봇(문자 또는 음성으로 대화하는 기능이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인공 지능)으로 답변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요, 언택트 서비스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고 찾아낼 수 있는 기능이 탑재 되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있다고 하면 그 동네에 모의고사장이 어던지 인턴십 기관을 조회할 수 있는 곳들, GIS에 기반한 우리 동네 정보 찾기 등 그리고 이 안에 들어왔을 때 자기들이 라이프 코칭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이 모든 것이 꿈드림 센터로서 기능할 수 있는 큰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방법들을 계속해서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자유토론 및 유튜브 실시간 질의응답

우장한 학습 분야 외에도 온오프라인 사업 추진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강근모 센터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강근모 학습지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앞서 설명 드렸던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와 성남 쪽에서 운영했던 것처럼 심리정서적인 부분, 진로와 관련된 부분들이 저희가 확장시켜야 될 방향인 것 같습니다. 지금 학습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시킬 수 있는 것이 검정고시이기 때문에 검정고시에 대한 학습과정을 진행시켜보고, 앞으로는 심리·정서적인 부분, 그리고 2부 주제에 대한 내용이죠, 지역사회가 함께 참가하는 진로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학교밖청소년들이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문화체험활동들 또한 영상으로 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한국장학재단,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하고 운영했던 크레이터 영상 교육 등 전문적인 기술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것 또한 이런 모형이나 틀이 구축된다면 확장시킬 수 있는 다양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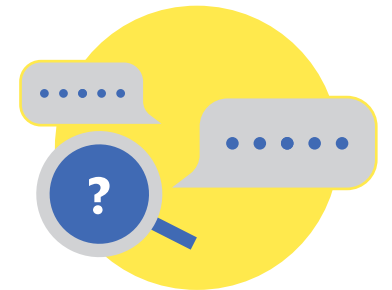
65

우장한 유튜브 질문 중, 학교밖청소년들에게 제공되는 장학 사업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의 오원교 팀장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원교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밖청소년들이 대학에 진학한다면 대학생이 되면 한국장학재단에서 지급하는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아쉽게도 한국장학재단 설립에 관한 법률 상, 현재는 대학생과 초, 중, 고 재학생들에게만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아까 발표자료 마지막에 말씀드렸듯이 향후과제로 관련된 법률을 개정해서 학교밖청소년들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중이고, 그럴 때 많은 여성가족부 등 여기 계신 분들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법률상의 제한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학교밖청소년들을 돕는 방법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가족부에도 방문하여 상의하였는데, 학교밖청소년들과 학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원하시는 게 온라인 멘토링이 가장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셔서 멘토링을 진행하는 대학생들에게 국가근로

장학금을 지급해서 대학생들은 장학금을 받고, 그 대학생들이 멘토링을 해주는 학교밖청소년들은 학습 지도를 받는 그런 방안을 현재 추진 중에 있고, 그래서 올해 7월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MOU를 맺게 되었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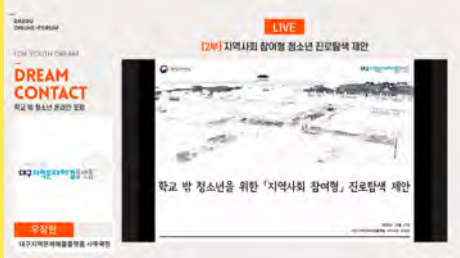


2부. 지역사회 연계형 학교밖청소년 진로체험 발제

1

지역사회 참여형 청소년 진로탐색 제안

우장한(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사무국장)



반갑습니다.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의 우장한입니다. 저는 오늘 학교밖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참여형 진로탐색이라는 주제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다른 분들과 저의 차이점이라면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이 교육 등의 분야의 전문가이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고민했던 내용들을 토대로 한 가지 아이디어를 제안 드린다고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오늘 네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사실 제가 한번 생각해본 말인데 지역사회 참여형 진로탐색이라는 용어에 대해 한번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여러 주체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타 지역에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타 지역의 사례를 통해서 실제로 앞서 1부에서 강근모 센터장님께서 대구형 블렌디드를 말씀해주셨는데요, 비슷한 맥락에서 통합형 학교밖청소년 진로지원 체계 구축에 대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1) '지역사회 참여형' 진로탐색

먼저 지역사회 참여형 진로탐색이라는 제안입니다. 보통 우리가 참여라는 용어를 이야기할 때 사실은 이제 신뢰와 관계에 기반한 것이 사실은 참여에 더 중요한 개념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세상의 문제가 나의 문제와 무관하지 않고, 특별히 그것이 구체적으로 실현이 되고,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현상이 바로 내가

66

67

살고 있는 지역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많은 환기가 되었습니다. 이미 서구권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교육의 혁신, 교육의 변화, 교육과 지역사회의 관계에 대한 상당히 많은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이 발제를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오랜 어떤 교육의 숙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화하고 무한경쟁을 추구하고 일률적인 것으로부터 탈피해서 어쩌면 이번이 교육의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청소년들이 주체성을 회복하고, 또 경쟁력보다는 요즘 중요한 이슈죠, 회복력을 갖게 되고 다양한 형태의 자신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오히려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지역사회에서의 어떤 참여를 고민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참여는 신뢰와 관계성에 기반한 참여라는 것입니다.

(2) 지역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주체

두 번째로 지역사회는 어떤 분들이 있고, 참여를 위한 지역의 주체들은 누가 있는가에 대해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은 이미 지역사회에서 지역문제를 해결을 위해 활동하시는 많은 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마을 공동체, 도시재생 그리고 NPO나 NGO 등에서 활동하시는 많은 분들을 만났고요, 한편으로는 공적인 영역에서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여하고 있는 여러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출자출연기관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업을 주최한 청소년지원재단도 그런 맥락에서 지역문제해결을 위해 만난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저희는 아들과 아까 말씀드렸던 청소년들을 연계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3) 타 지역 사례 공유 : 하자센터·삶디자인센터

실제로 타 지역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서울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는 어떤 작업장이자 학교로서의 새로운 장을 만들었습니다. 청소년이 주도하는 다양한 활동, 그리고 창의적인 진로교육, 그리고 청소년 스스로가 자신의 의제,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 경험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1부에서 발표해주셨는데 광주에서도 '청소년 삶 디자인센터'라는 곳에서 이런 활동들을 지역사회와 연계한 창의적인 어떤 직업체험이나 탐색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4) 제안: '통합형'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원 체계 구축

저는 그런 맥락에서 통합형 진로지원체계 구축에 대한 제안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오늘도 참여하셨던 분들이 같은 맥락에서 이미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광주 삶 디자인센터, 서울에 하자센터가 있다면 이미 대구에는

대구청소년창업센터 꿈앤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지원재단에서는 마인 플래닛이라는 이름으로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을 발견하고 새로운 직업을 탐색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이 구축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마을교육나눔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실제로 마을이 공동체가 청소년들을 함께 성장시킨다는 목적을 가진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활동들이 현재는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의 협력과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미 기존에 있는 진로진학지원센터를 비롯한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대구에는 학교밖청소년들이 인터넷을 통해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정책이 대구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소개드렸던 서울시립하자센터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같이 실제적인 현장에서의 경험과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교육체계를 구축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 저는 하나의 장, 마당을 만들어볼 것을 제안 드립니다. 지역사회와 청소년들이 함께 신뢰와 관계성에 기반한 참여의 장이 만들어질 것을 제안 드립니다. 이미 1부에서 저희는 그런 가능성을 경험한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기존의 여러 정책과 기관과 함께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저는 아까 저희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이 관계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 마을공동체 등 여러 기관들과의 만남의 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볼 것을 제안 드립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연동해서 말입니다.

올해는 저희가 학습격차 해결을 위한 온라인 교육체계 구축이라는 이름으로 앞서 1부에서 다양한 가능성을 고민했습니다. 제안 드리는 것은 내년에는 이것을 보다 확대해서 지역사회 참여형 진로탐색을 위한 통합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지역사회에 있는 여러 지역문제해결의 주체들과 함께 만들어 갈 것을 제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대구 사회적기업과 학교밖청소년 진로체험연계

허영철(대구사회적기업협의회 회장)



안녕하세요. 대구사회적기업협의회 회장이고, 공감씨즈라는 사회적 기업의 대표입니다.

저희는 지역에서 북한이탈주민 돕는 일을 오래 해왔고, 그 분들의 강점을 살려서 고용을 늘리는 방향으로 공감씨즈라는 사회적 기업을 창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밖청소년에 관한 발표제안을 받고 개인적으로는 저희들은 북한이탈주민 청소년을 위한 공부방을 운영하다가 지역 공부방이 좋아져서 통합교육을 위해 저의 공부방은 문을 닫고 지역사회 탈북 아동·청소년들이 참가하게 했던 개인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학교밖청소년들의 진로직장 체험에 관해서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체험하자는 이러한 제안을 받고 지금 내부적으로 논의 중입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잘 모르실까봐 소개하면서 제안 받은 내용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1) 사회적 기업이란?

사회적 기업은 한국에서 12년 정도 되었습니다. 유럽에 있는 기업들과 조직들 중에 사회적 경제 기업과 조직들이 많습니다.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GDP대비 8~9% 정도 차지 할 정도로 많이 차지하고 있고, 영국의 경우에도 5% 가까이, 일본 같은 경우에도 '세쿄'라고 하죠, 생협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발전되어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전 세계 사회적 경제 조직들을 보면 어떤 위기가 왔을 때 해고하지 않고, 임금을 같이 낮춰서 같이 간다든지 등의 사회적인 가치도 취약계층 고용창출을 한다든지,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든지 이런 주류 경제는 되지 못하지만, GDP대비 선진국의 10% 정도를 이룬 비주류 경제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가 책임짐으로서, 조금 더 사회가 기업의 이윤추구만이 아닌 함께 가고자 하는 기업이 사회적 기업이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한국은 독특하게 국가주도형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노동부 소속으로 되어있고, 노동부의 인증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마을기업은 행정안전부,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차상위 계층을 위한 자활기업은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의 경우를 모아서 사회적 경제라고 하고, 저희는 그중에 사회적 기업 협의회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적 경제가 10년 전 대비해서 많이 성장해서 지금 GDP대비 0.1%수준, 최근 지난주에 대규모 조사사업이 끝났는데요, 이 보고서가 내년 초에 나오면 조금 더 변화되고 발전된 사회적인 통계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년 전에 우리가 GDP대비 0.04%였는데, 지금 0.1% 수준까지 발전해왔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영향력이 계속 발전해 나간다면 기존에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고용 창출뿐만 아니라 학교밖청소년들도 결합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대구지역 사회적 기업 현황

대구 지역은 2018년 말 기준으로 자료를 찾아 왔습니다. 2018년도 말 기준 785개의 사회적 경제가 있습니다. 그 중 마을기업이 81개 사회적기업 121개 협동조합은 583개입니다. 사회적 기업은 2년 사이에 많이 늘어나서 2020년 기준 175개까지 늘어났습니다.

사회적 경제기업 상황을 살펴보면 대구가 타지역과 비교했을 때 여가와 교육관련 서비스가 많은 편입니다. 이제 다음이 제조업 그리고 가장 많은 건 도매 및 소매업입니다. 만약 이러한 사회적경제가 잘 되어 학교밖청소년들이 결합하게 된다면, 이러한 직종들 중에 학교밖청소년들의 특성에 맞고 적응할 수 있는 곳을 잘 매칭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통계를 지역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중 북한이탈주민 관련해서는 저희 공감 씨즈에서 하고 있습니다. 에이즈 감염인 지원 관련해서는 레드리본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Big Hands라고 카페를 대구 동구에서 운영하고 있고, 벌써 5호점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엘리롤하우스라고 빵 만드는 곳에 보면 또 학교밖청소년 관련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 채용하고 있는 제조 기업들이 많습니다. 이번 코로나 상황에도 사회적 기업들도 어렵지만 모금을 해서 지원을 하고 코로나 진료를 하는 의료진 및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무료급식인 도시락을 배달했고, 저희 공감 씨즈 같은 경우에는 의료진들을 위한 숙소를 제공했습니다.

70

71

(3)사회적 기업 연계 체험 사례

저희 회사의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올해로 5년째 사람장애인지원센터와 발달장애인 직장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네 분이 9개월 정도 체험하고 있고, 이번 팀들이 지난주 겨울방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해울고등학교와 간디학교와 진로체험을 한 적이 있고, 학교밖청소년의 경우에는 여학생들의 진로체험을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일단 제안받고 상임이사님들과 사무처 모임에서는 이런 결합 활동을 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의견이 모아진 상태이고, 계획이 세워진다면 이사회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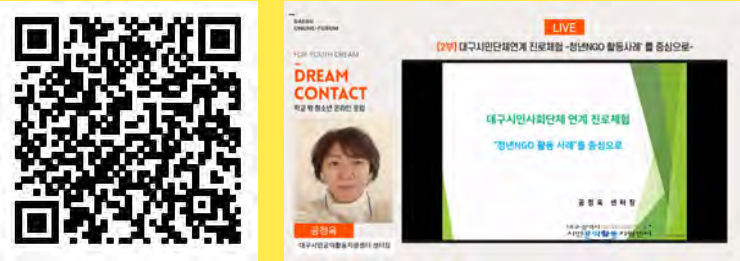
(4)제안

그래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네 가지만 말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째는 학교밖청소년 진로 프로그램이 된다면,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교육이 사회적 기업들 대표자뿐만 아니라 실무자에 대해서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설계하실 때 좀 명확한 목표설정이 필요하지 않나 과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얻을 것인가 그것들을 국내의 사례나 발전방향에 대한 명확한 제시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청소년들한테 길게 사회적 기업이 어떤 것인지, 교육관련 사회적 기업이 많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하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청소년들의 적성에 맞는 이 매칭을 어떻게 잘 만들어 낼 것인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간단하게 제안 드려봤고요, 앞으로 연계가 잘 되어서 지역사회에 학교밖청소년들과 사회적 기업이 연계되는 좋은 사례가 되기를 바랍니다. 회장에서 결정은 못하지만,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3

대구시민단체연계진로체험 - '청년NGO 활동사례'를 중심으로-
공정옥(대구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센터장)



반갑습니다. 공정옥입니다. 저는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포럼제안을 받고 저희가 학교밖청소년들과의 경험이 많지 않은데 해당이 될까라는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수탁법인인 대구시민센터라고 대구시로부터 민간위탁을 수탁 받고 있는데, 시민센터에서 그동안 해왔던 청년들이 NGO단체들과 결합했던 사례들을 이야기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후기 청소년이라고 하면 20대 초반까지도 해당되기 때문에 꼭 10대 중후반의 학교밖청소년이 아니라도 후기 청소년들의 지역사회경험, 지역사회교류에 대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향후 몇 년 후의 진로사례로 이해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저희가 진행했던 청년NGO 활동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72

(1)대구 청년 NGO활동 사업 목적

이 사업의 목적은 간단하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대구에 청년이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지역의 청년들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의 연계라는 것이 다양한 생태계에 대한 경험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경험이 얼마나 진행되고 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조금 미약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역 청년들이 NGO활동을 통해 사회참여의 기회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저희처럼 공익활동을 지원하거나 공익활동가를 키우는 기관에서는 이런 청년과 청소년들의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청년들의 새로운 일자리 모델의 하나로 볼 수 있다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73

(2)대구 청년 NGO활동 확산 사업 선정 배경

그 과정을 말씀드리면, 2016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2016년에는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이 사업이 선정되었고, 2017년, 2018년, 2019년에는 대구청년NGO활동 확산 사업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기간	2016	2017	2018-2019	2020
내용	주민참여 예산사업으로 선정	대구청년NGO활동 지원 사업	대구청년NGO활동 확산 사업	행정안전부 청년 Pre-Job 사업으로 진행

(3)활동지원내용

저도 심사를 참여해보면 물론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도 있고 또는 학교 밖 시기를 보낸 청소년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청년들이 신청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단순히 NGO단체에 가서 일을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함께 지원합니다.

그 일환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단체에 매칭 되어있는 청년들이 모여서 활동가로서의 역량,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 등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간혹 그런 불만들은 이야기하십니다. 청년들이 와서 단체 일에 도움이 되어야하는데 매일 교육받는다고 나오라고 연수받는다고 나오라하니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이 나오기도 하지만, 사실 진로를 결정하는 것에 대한 근간을 마련하는 것은 충분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청년들을 NGO 단체에 매칭하면서 그 단체에 대한 과업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이것을 진로로 선택할 수 있는 판단과 경험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들도 같이 병행해서 진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공유 워크숍이나 심화교육 워크숍 등도 진행하였습니다. 또 하나는 청년들이 활동을 하면서 개별 단체에 머무르게 되면 다른 단체들의 활동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과연 이것이 나의 진로로 적합한 것인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청년들끼리 스스로 학습 과제를 만들어 해결해보기도 하고 토론을 하는 형태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여러 활동을 알리는 일도 저희가 했습니다. 지역 언론사하고 연계해서 활동을 하는 것을 홍보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청년들이 지역단체들과 교류하면서 성장해나가는 모습들을 많이 알고고자 했습니다.

(4) 상근 활동가 현황

단체 활동을 통해서 이분들이 상근 활동가로 남는 수가 저희가 3년에 걸쳐 20명 정도 됩니다. 처음에 한 5개월에서 10개월 정도의 인턴십이 있는데 사람에 따라 이 경험을 해보고 나의 진로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시민사회 단체 활동가가 나의 진로가 되겠다.’라고 생각하셔서 이 길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 보다 그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열아홉 분 정도가 현재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정리한 표를 살펴보면 표의 항목 중 활동단체는 초반에 청년들과 NGO 단체들을 매칭할 때 맺어지는 겁니다. 이 분들이 꼭 이 단체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되면 다른 단체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그 단체에서 활동가로 일하기도 합니다.

(5) 청년 NGO 활동 신청 현황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정리한 표를 보시면 신청자 중 청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직접 면접을 해보면 ‘생각보다 이런 비영리단체, 그리고 공익활동에 대한 경험의 욕구들이 청년들도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기회가 많이 있다면 얼마든지 청년들의 참여는 이루어지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74

75

(6) 청년 NGO 사업을 통한 시민단체의 성장과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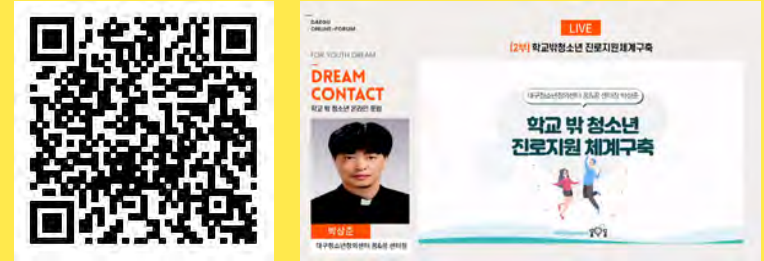
시민단체의 변화도 사실 있죠. 단체 고질적으로 인력난이 있는데 청년들이 함께함으로써 인력난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요즘 세대갈등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다른 세대들 간에 같이 일하면서 새로운 시민운동에 대한 방식도 같이 고민하게 됩니다.

(7) 진로체험을 위한 제안

간단하게 정리하면 오늘 모인 분들도 대부분 이런 영역에 많이 계실 텐데, 사실 그동안 청소년이나 청년들이 직업군으로만 분류했던 것 이상의 새로운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공익활동 영역이, 마을 공동체, 사회적 경제, 지역혁신영역 등에서 이미 새로운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여전히 청소년과 청년들의 진로는 기존의 직업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영역에 대한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회성 프로그램이나 체험으로는 진로를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정기간의 지속적인 활동이나 경험이 같이 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5개월 이상의 인턴십이나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진로에 대해 여러 방면에서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지 않나, 그것이 지역사회 연계의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학교밖청소년 진로지원 체계구축

박상준(대구청소년창의센터 꿈&꿈 센터장)



안녕하세요. 대구청소년창의센터 꿈&꿈의 박상준 센터장입니다. 저는 학교밖청소년 진로지원체계구축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겠습니다.

(1) 대구청소년창의센터 꿈&꿈 소개

일단 저희들 센터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는 앞에서 설명하셨던 하자센터나 샹디센터하고 비슷한 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교밖청소년들이 학교를 나와서 자신들의 삶을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저희 센터를 통해서 내 삶에 맞는 직업군들이 무엇이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내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찾아보는 센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을 체험하게 하고, 진로를 탐색해서 학교밖청소년들을 건강한 사회인으로 사회에 내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 대구시 위기·학교밖청소년 현황

학교밖청소년들의 법적 기준 나이가 9세부터 24세까지입니다. 대구시의 청소년 인구 숫자는 441,694명인데, 학교를 중단하는 청소년들의 숫자의 비율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학교밖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을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센터는 이러한 친구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여 유형별로 원하는 일자리를 모색하고 지원해주는 기관입니다. 학교 및 관계기관, 각종 마을 네트워크, 대학기관과 기업, 노동관서와의 연계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고 체험할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3)사업운영 및 이용현황

꿈&꿈 센터의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꿈꿈학교라고 해서 직업 훈련과 체험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먼저 청소년들의 욕구를 조사하여 선호하는 일자리를 발견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전문가 선생님들과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이 후, 프로그램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행연습을 인턴십을 통해 검증합니다. 이 후에 사회진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꿈꿈직업훈련	기업가정신함양	인턴십	사회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육구조사 • 기초직업훈련 • 심화직업훈련 • 동기제고·적성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해결역량 • 의사소통능력 • 인간관계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개발역량 • 현장직업체험 • 직업역량강화 • 자격증 취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전문성역량 • 직업멘토링 • 지역기업탐방 • 취·창업 지원

(4)지역연계사례

사실 저희들이 오늘 지역문제해결플랫폼과 청소년지원재단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하고 있을 때 고무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도 겪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이지만 지역 연계를 이미 조금씩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와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MBC와 연계를 해서 미디어를 제작하고, 편집하고, 방송을 해보는 그런 연계도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5)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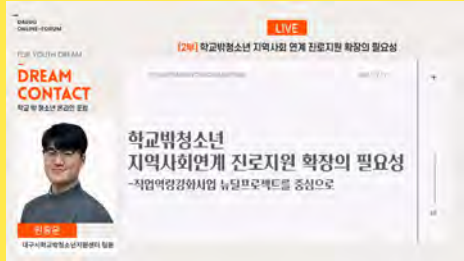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어려운 점이 무엇이나 하면 이런 것들이 통합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각자 나름대로의 자리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정보가 일관되지 않고 통합되지 않아서 이것이 조금 더 한 분야로 통합이 되고 통합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우리 친구들에게 조금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줄 수 있게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리가 굉장히 고무적인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 기업과 공익활동센터 등등 이런 자리들이 한 곳에 모이면, 앞서 공정옥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를 만드는 자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공익 활동이나 여러 가지 자신들이 선호하는 활동들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지고 각 기관에서도 학생들에 대한 관리가 원활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되기 위해서는 주체적으로 끌고 가는 중심이 되는 기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관을 중심으로 여러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같이 공감해준다면 이것이 원활히 잘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관별로 하나로 묶고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주체가 정해져야 되고,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활용이 잘 되면 저희 센터도 그렇지만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들에 비해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아이들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 연계가 되면 좀 더 많은 친구들이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숨어있는 친구들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중복되는 친구들을 사전에 조율을 해서 이런 기회들을 조금 더 많은 친구들에게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포럼을 계기로 활성화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고 도움이 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학교밖청소년 지역사회연계 진로지원 확장의 필요성

원동윤(대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팀원)



안녕하세요. 대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원동윤입니다.

저는 학교밖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업역량강화 사업을 운영하는 우리 센터의 입장에서, 그리고 현장에서 직접 서비스를 지원하고 아이들과 사업장을 관리하는 구군센터담당 선생님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연계형 진로지원 확장의 필요성에 관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핵심내용을 목차로 전달하겠습니다.

78

(1) 직업역량강화사업

먼저 직업역량강화사업입니다. 대구시 특화사업으로 시작된 직업역량강화사업은 현재 서울과 부산 등 9개 시도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국사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여가부의 가이드 라인을 바탕으로 각 지역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지역 특화프로그램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대구지역은 뉴딜프로젝트로 5년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해야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꿈드림 센터의 입장에서 오늘 이 자리가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학교밖청소년을 위한 진로지원 패러다임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첫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대구형 직업역량강화사업 뉴딜프로젝트 사업 흐름도입니다. 먼저 상담 또는 진로 심리검사로 학교밖청소년들의 욕구를 파악한 후 또래 관계나 경제교육의 커리큘럼으로 구성된 20시간 자립강화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학교밖청소년들은 실제 직업체험 전 대비과정으로 필요기술을 선택한 뒤 30시간의 기초기술훈련을 진행합니다. 4단계 직장체험과정에 들어서게 되면 본격적인 일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앞서 과정들을 통해서 습득한 기술을 직접 현장에

79

적용하고 청소년들의 직장체험 수단을 지급받습니다. 여기까지 과정을 수료한 청소년들은 고용노동부의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는 고용노동부의 정책과 직업역량강화사업이 연계되어있는 것입니다.

연도별 참여청소년 현황입니다. 매년 평균 약 60여명의 학교밖청소년들이 직업역량강화사업에 참여하고 이 중 절반이상이 4단계 전 과정을 수료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성공적으로 과정을 수료는 하고 있지만 매회 발생하는 중도탈락인원에 대해 그 이유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제 올해 중도 탈락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인터뷰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봤습니다. 다양한 지역사회연계 프로세스를 어떻게 구성하는지도 중요하지만 학교밖청소년들과 직접 만나게 될 사업주, 즉 멘토인 어른들이 학교밖청소년들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충분히 되어야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연계 사업장 현황입니다. 저희 한해 평균, 30여 곳에 지역사회 사업장이 연계 사업장으로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교밖청소년들에게 의미 있을 만한 사업장 발굴을 위해 저희 구군 담당자 선생님들께서 현장에서 열심히 발로 뛰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연계사업장이 바리스타나, 제과제빵으로 치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가 한정된 자원 내에서 최선의 선택지를 찾으려고 하고 있지만 현장의 노력만으로는 개선하기 어려운 점이 다양한 체험처의 발굴이었습니다.

(2) 학교밖청소년의 수요

학교밖청소년의 수요의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실태 조사에 따르면 학업중단 이후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 두 번째로 저희 아이들이 꼽는 것은 적성에 맞는 진로 찾기였습니다. 또한 아이들은 또래보다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하는데서 오는 이점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학업중단 이후의 자신의 기대와 현실세계의 격차를 명확하게 느끼고 진로와 자립의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요구를 갖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저희 학교밖청소년들이라고 해서 모두 부적응이나 갈등을 이유로 자퇴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자신만의 진로를 경험하고 원하는 것을 배우거나 특기를 살리기 위해 자퇴를 결정하는 아이들의 비율도 약 34%가량이 됩니다. 앞서 소개한 세 가지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은 내실 있는 진로체험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여성가족부의 제 6차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에서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한 진로체험의 기회를 확대할 것을 강조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 학교밖청소년들을 위한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대학진학, 자격취득 등 성과를 위한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는 한계, 한정된 자원으로 아이들에게 다양한 체험처를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만나는 청소년들은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진로지원과 체험을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지속적인 경험의 의미는 저희 학교밖청소년들의 진로선택과 결정과정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3)통합형 학교밖청소년 진로지원 생태계 구축

통합형 학교밖청소년 진로지원 생태계 구축은 학교밖청소년만의 일방적인 참여가 아닌 지역사회가 함께 소통하고 참여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혜자인 학교밖청소년 그리고 기관에 입장에서 조금 더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부분에 대해 세 가지를 주장하며 발표를 마칠 예정입니다.

학교밖청소년 진로지원 생태계 구축의 핵심 키워드를 다양성, 지속성, 창의성 개념을 제안합니다. 앞서 설명 드렸듯 실제 학교밖청소년들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진로체험 분야를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지원프로세스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진로결정이 우리 학교밖청소년들도 협동조합형태의 창업이나 미래직업분야로의 진출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조금 더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학교밖청소년들은 지역사회의 유능한 자원입니다. 정규 교육과정에서 벗어나있지만 그들만의 꿈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아이들과 지역사회가 연계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더욱 더 건강하게 성장할 것이고 이는 지역사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칠 예정입니다.¶



2부. 자유토론 및 유튜브 실시간 질의응답

강근모 공정옥 센터장님께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청소년 NGO 활동이 학교밖청소년에게 미래 일자리로서 어떤 매력이 있는지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정옥 네, 우선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밖청소년에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만, NGO 활동이라는 것이 사실 누구보다도 주체적으로, 스스로 문제를 찾아보기도 하고 해결방법을 고민해보기도 하는 활동을 NGO 활동이라고 본다면, 학교밖청소년들이 제도권 내에서 설계되어있는 교육과정이나 절차를 밟는 것 보다는 조금 더 창의적으로 사고하거나 역동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여지는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NGO 활동처럼 정형화되어있지는 않지만 지역사회문제를 찾아보기도 하고 해결하는 방법들이 다양한 이런 영역에 매력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 공익활동지원센터에는 작은 공모사업들이 있는데요, 꿈&꿈의 청소년들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선생님과 같이 제안해서 지역사회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고자하는 의지를 많이 표방했는데, 그런 영역에서 유사성을 찾아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굉장히 능동적으로 사회를 바라보고 해결의 주체가 되는 이런 측면으로서 매력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근모 다음은 허영철 회장님께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학교밖청소년이 사회적 기업에서 진로체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분야가 있을지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허영철 현재 대구에 사회적 기업만 175개를 넘어섰고, 업종별로 굉장히 다양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것을 기업한테 강요를 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기업에서 진로체험을 한다는 것이 기업에 부담이 되지 않고, 우리 청소년들이 여기에서 자신의 진로를 모색할 수 있게 활동을 하려면 서로 간에 준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효과를 얻으려면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업종의 업체들이 신청을 해줘야 청소년들이 신청할 수 있겠죠? 비영리 활동처럼 가치가 있으니 함께 합시다라는 것만으로는 기업의 현장체험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나 홍보나 정확한 목표, 그래서 기업한테 줄 수 있는 것, 기업한테

받을 수 있는 것이 준비가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분야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참가하게 만들어내는 과제가 주어져있는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일반 기업에서 청소년들이 이걸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현재 한국의 기업들은 이윤 추구의 패러다임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데, 중간 과정으로 사회적 기업들이 좋은 성과를 내게 한다면 궁극적으로는 독일의 직업학교나 직업체험처럼 기업들이 이런 활동을 할 수 있어야 우리 사회가 참 건강하게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모델을 잘 만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근모 다음은 우장한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밖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참여형이라는 부분들을 말씀해주셨는데, 현재 토론을 하는 기관들도 많은 기관이 들어왔습니다. 현재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기관들 중에 어떤 기관들이 참여를 하면 더욱 풍성한 논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장한 네, 질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오늘 토론 시간이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고민을 했지만 사실은 소개해드리고 싶은 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의 경우 지역의 다양한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도시재생센터의 경우 구체적으로 일 경험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고, 이미 청년들은 그런 제도를 통해서 많은 일 경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토론하기 전에 한 지역에 있는 도시지원센터장님하고도 대화를 해봤는데 본인도 학교밖청소년들이 일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제공에 관심이 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또 제가 알기로는 타 지역의 경우 마을 공동체가 청소년들의 교육이나 진로 탐색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파트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대구에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도 있고요, 각 지역에 이미 여러 가지 통합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조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조직들을 통해 굳이 일 경험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형태로 청소년들이 마을에서도 자신이 새로운 삶을 상상해볼 수 있구나하는 자극을 줄 수 있는 경험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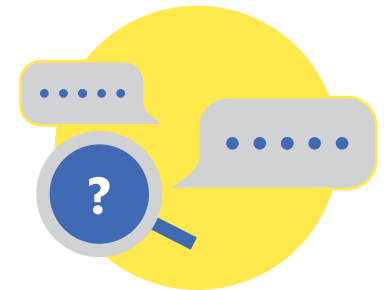
최근에 저희가 특수고용이나 프리랜서 협동조합을 만들기도 했었는데, 이미 그 사업에도 관심이 있는 청소년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청소년들 중 본인이 직접 창업을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친구들도 이미 활동하고 있는 지역의 프리랜서들과

만나서 교류하고 정보를 주고받는 것들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연계해드릴 수 있는 활동의 장들을 많습니다. 1부에 나왔던 공공기관 같은 경우도 4차 산업혁명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게 되게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도 정보화진흥원이나 교육학술정보원에서 같이 연계하는 사업장 같은 경우도 청소년들이 직접 일 경험을 할 수 있는 케이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중요하다고 들은 것은 파트너들이 많이 있지만 개별 기업이나 개별 단체의 노력만으로는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원동윤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오히려 다양한 형태의 공모사업을 하든, 탐방을 하든, 교육을 받든, 단기간의 일 경험을 하든, 또는 사회적 기업과 같은 경우 실제 채용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제도적으로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개별 기업의 혹은 개별 청소년들의 몫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통합적인 체계를 만들어가는 고민이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2

83



1차 『학교밖청소년 교육지원』 협업테이블

일시

2020년 6월 10일 (수) 14:00

진행

혁신공간 바람, 혁신홀(중구 중앙대로 402, 4층)

참여자

11명

대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강근모 센터장, 김도한 팀장)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정기영 팀장, 김상운 선임전문원, 정진명 부장, 이민지 연구원)

대구광역시 청소년지원팀(박나연 주무관, 손은정 주무관)

한국장학재단(백경준 주임)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우장한 사무국장, 이재찬 선임매니저, 권준열 매니저)

기록자

권준열(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매니저)

논의 내용 요약

안건1. 당사자 의견 수렴 방법

- 구-군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청소년단

안건2. 어떤 교육 콘텐츠를 개발할 것인가?

- 인식교육 콘텐츠: 학교밖 청소년 ≠ 위기(비행) 청소년
- 검정고시 학습지원 콘텐츠
- 진로 교육 콘텐츠

안건3. 어떻게 보급할 것인가?

- 오프라인 전달체계 구축: 대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한국장학재단 등
- 온라인 전달체계 구축: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정보화진흥원, 교육청 등



84

85

2차 『학교밖청소년 교육지원』 협업테이블

일시

2020년 6월 10일 (수) 16:00

진행

혁신공간 바람, 혁신홀(중구 중앙대로 402, 4층)

참여자

4명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민지 연구원)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우장한 사무국장, 이재찬 선임매니저, 권준열 매니저)

기록자

권준열(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매니저)

논의 내용 요약

안건1. 광주 협업 연계 여부

- 실무자 중심의 소통으로 업무진행을 제안(한국교육학술정보원)

안건2.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본 원은 직접 콘텐츠 개발이 아닌, 협업단체의 콘텐츠를 현 에듀넷에 업로드 하여 콘텐츠의 다양화를 모색 가능
-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현실 가능한 협업 가능 부서 및 협업단체와의 연계를 준비(환경: 녹색소비자연대, 환경교육연합, 대구환경교육센터 등)

안건3. 콘텐츠 주제의 다양화

- 환경 외에도 안전(사이버 범죄), 인권 등 교육콘텐츠는 개방되어 있음
- 우선 환경 영역부터 시작



3차 『학교밖청소년 교육지원』 협업테이블

일시

2020년 6월 30일 (화) 10:00

진행

혁신공간 바람, 유스카페(중구 중앙대로 402, 4층)

참여자

12명

대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강근모 센터장, 김도한 팀장, 원동윤 선생님)
한국교육학술정보원(정진명 부장, 명창훈 책임연구원, 김상운 선임전문원,
김대권 전문원, 이민지 연구원)
대구광역시 청소년지원팀(박나연 주무관)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우장한 사무국장, 이재찬 선임매니저, 권준열 매니저)

기록자

권준열(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매니저)

86

87



논의 내용 요약

안건1. Off-Line : KERIS의 [꿈을 잇(IT)다] 사업 추진 논의

- 인원: 최대 25명
- 대상: 모집공고(예정), 언론보도로 홍보(예정)
- 일정: 9월~10월 중 (빠를수록 좋다)
- 장소: 대구스마트시티지원센터(대구 북구 연암로 40 201동 1층)
· 우장한 사무국장 소통완료 (사전 예약만 하면 가능)
· 데스크탑 25대, 노트북 25대 보유 (사용가능):
교구(PC)대여 예산절감 효과
- 프로그램: 계획(안)처럼 IT 프로그램으로 진행
(학생들은 영상촬영 및 편집 교육 수요가 높다.)
- 보조강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준비
- 예산: KERIS 전담, 간식(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장소(지역문제해결플랫폼)

안건2. On-Line 교육지원 관련

- 먼저 오프라인부터 협업을 시작하고, 온라인은 협업 가능한 논의부터 시작
- KERIS 온라인플랫폼(위두랑) 사용 매뉴얼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공유
- 현재 교대 학생들이 콘텐츠(주제:검정고시 대비 (학습자료)) 제작 중
- 다른 콘텐츠 제작은 한국장학재단과 논의 중(주제: 음악, 합창단)
- 다음 미팅 때는 온라인 콘텐츠 논의를 위해
교대 학생도 올 수 있으면 좋겠다.

4차 『학교밖청소년 교육지원』 협업테이블

일시

2020년 7월 29일 (수) 10:30

진행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사무국(중구 종로 45-4, 3층)

참여자

5명
대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강근모 센터장, 김도한 팀장)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이재찬 선임매니저, 권준열 매니저, 안지혜 매니저)

기록자

안지혜(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매니저)



논의 내용 요약

안건1. 학교밖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_대구교대 협업 관련

- 학교밖지원센터-대구교대 손장호 교수 미팅 결과 공유
- 교육지원 가능 대학생을 선발하여 투입
- 커리큘럼과 매뉴얼을 구체적으로 기획, 제작이 필요
- 아이디어 제안-커리큘럼 제작시 학교밖청소년 면접조사를 실시 후, 그것을 바탕으로 커리큘럼을 제작하는 연구과제로 실행
- 실행 과제 논의
- 예산 확보 필요:
공모사업 등을 통해 의제 실행을 위한 마중물 예산 확보 필요
- 대구시 담당 주무과 간의 협력 소통 필요: 청소년과-자치행정과
- 장기 프로젝트로서의 로드맵으로 올해 실행 가능한 목표를 정해 진행
- 협력 기관 확대 필요

안건2. KERIS 협업 의제 관련 논의

- KERIS-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회의 내용 공유
 - 8/3(월) 회의 후 공유 가능
 - 교육콘텐츠 주제 추가 제안: 코딩 교육
- ※참고: 7/22(수) 회의 내용 중-교육프로그램 주제는 웹툰, 크리에이터, 포토샵.



5차 『학교밖청소년 교육지원』 협업테이블

일시

2020년 9월 10일 (목) 10:00

진행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사무국(중구 종로 45-4, 3층)

참여자

8명

대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강근모 센터장, 김도한 팀장, 원동운 선생님, 배나현 선생님)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우장한 사무국장, 이재찬 선임매니저, 권준열 매니저, 손주연 매니저)

기록자

손주연(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매니저)

90

91



논의 내용 요약

안건1. Off-Line: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진로체험 사업 논의

- 기존사업 일정연기
 - 일시: 2020 9월 3 ~ 4일(목금), 대구시스마트시티지원센터
 - 내용: 웹툰/크리에이터/포토샵/코딩(4개 주제) 교육프로그램
 - 사유: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대구스마트시티지원센터’ 휴관으로 인해 일정연기
- 사업 추진 일정 논의
 - 교육 인원: 기존(안) 25명 유지 예정
 - 추진 일정: 9월 ~ 10월 중 코로나19 방안 완화 후 예정
 - 섭외 장소: 기존 유지 or 추가적인 장소 섭외 여부 확인

안건2. On-Line: 온라인 플랫폼(위두랑)의 활용

- 온라인 플랫폼(위두랑) 활용 협의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위두랑’ 학교밖청소년 해당 카테고리 개설: 커뮤니티 기능 활성화 방향 고려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학교밖청소년들이 온라인플랫폼(위두랑) 가입 및 1차 활용
 - 내년 자체 예산 확보하여 온라인 콘텐츠 개발 추진(예정)
 - 대구교대와 협업을 추후에 논의를 예정
 -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대구 및 광주의 협력단체 중 활용가능한 영상콘텐츠 수합
 - 대구 및 광주의 협력단체를 중심으로 활용 가능한 영상 업로드
 - 내년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온라인 콘텐츠 개발 추진(예정)
- 온라인 플랫폼(위두랑) 활용 홍보관련
 - 온라인플랫폼 활용 홍보 및 참여유도
 - 참여한 학교밖청소년 대상으로 만족도 실시



6차 『학교밖청소년 교육지원』 협업테이블

일시

2020년 10월 12일 (월) 10:00 ~ 11:00

진행

ZOOM 화상회의,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사무실(대구 중구 종로 45-4 3층)

참여자

16명

대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강근모 센터장, 김도한 팀장, 원동윤 선생님)

한국장학재단(오원교 팀장, 김경희 팀장)

한국교육학술정보원(정진명 부장, 김상운 선임전문원,

최경선 선임, 양민혜 선임, 장성아 연구원)

대구광역시 청소년지원팀(박나연 주무관, 손은정 주무관)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우장한 사무국장, 이재찬 선임매니저, 권준열 매니저, 손주연 매니저)

92

93

기록자

안지혜(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매니저)

논의 내용 요약

안건1. Off-Line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진로체험 교육 사업 일정조율

- 사업 추진 일정 논의
- 추진 일정(안): 10월~11월 중
- 교육 인원: 25명
- 교육 내용: 기존 추진 사업과 동일
- 섭외 장소: 대구스마트시티지원센터

※ 참고사항: 기존 추진 사업 일정 연기

- 일시: 2020년 9월 3~4일 (목금), 대구스마트시티지원센터
- 내용: 웹툰 / 크리에이터 / 포토샵 / 코팅 (4개 주제) 교육프로그램
- 사유: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대구스마트시티지원센터' 휴관으로 인해 일정 연기

안건2. On-Line : 온라인플랫폼(위두랑, 에듀넷)의 활용 방안

- 온라인플랫폼(위두랑, 에듀넷) 활용 협의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교밖청소년 전용 로그인 카테고리 개설 여부 확인
- 온라인플랫폼에 영상콘텐츠 파일업로드 가능여부 확인 필요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학교밖청소년들의 온라인플랫폼 가입 및 클래스 활용 여부
- 본 사업의 연계 가능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범위 (ex. 대구시 구군지원센터, 전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 (한국장학재단) 대학생 자원봉사단과 연계방안 (ex. 위두랑 클래스 개설 시 보조교사, 기타 등)



7차 『학교밖청소년 교육지원』 협업테이블

일시

2020년 11월 2일 (월) 13:30

진행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사무국(중구 종로 45-4, 3층)

참여자

5명

대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강근모 센터장)

대구청소년지원재단(조정운)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우장한 사무국장, 이재찬 선임매니저, 유은정 매니저)

기록자

유은정(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매니저)

94

95



논의 내용 요약

안건1. 교육대상(청소년) 모집에 관한 논의

- 교육대상(청소년) 모집
 - 다음 주 중으로 모집 대상 확정
 - Keris에 전달하고 업체와 미리 소통
 - 참여 청소년들 맞춤형으로 교육 진행
 - 프로그램 일정이 학교 수업시간과 겹침.
 - 학교 안 청소년 모집 위해 수업 대체 공문 필요
- 학교 안팎 청소년 비율
 - 학교 안팎 청소년들 각 10명씩 참석하는 것이 좋을 것.
 - 모집 기한이 촉박하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비율 조정

안건2. 참여하는 청소년들 노트북 활용 가능여부

- Keris에서 청소년들 개인 노트북 지참 가능하면 활용하고자 함.
- 프로그램 참여 청소년들 대상으로 개인 노트북 지참 가능 여부 조사
- 부족한 수량에 대해 스마트시티 지원센터에 지원가능여부 문의
- Keris에서 노트북 일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 카메라 기능이 있는 노트북만 가능



8차 『학교밖청소년 교육지원』 협업테이블

일시

2020년 11월 16일 (월) 16:00

진행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사무국(중구 종로 45-4, 3층)

참여자

5명

대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김도한 팀장, 배나현 선생님)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우장한 사무국장, 이재찬 선임매니저, 손주연 매니저)

기록자

손주연(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매니저)

논의 내용 요약

안건1. 학교밖청소년 온라인 포럼 준비 논의

- 온라인 포럼 관련 일정
 - 2020년 12월 17일 진행예정
- 온라인 포럼 진행 관련 구성
 - 2부와 3부를 분리된 내용보다는 전체 통합하여 흐름 진행하면 좋겠음
 - 학습과 진로/자립에서 방향성 고민 - 통합적인 구성
 - 대구 기관 안에서의 내용이면 좋을 듯 (타지역은 확장 이후 논의)

안건2. 학교밖청소년 의제 관련 향후 방향성 실무 논의

- 학교밖청소년 지원 방식
 - 진로교육 제공 (다양한 경험을 통한 진로 방향 모색)
 - 플랫폼의 기관자원 활용한 체험활동
 - 인턴십 프로그램 활용 방안도 고려
- 대상은 학교밖청소년 및 학교안청소년까지
- 우리의 역할은 자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도와주는 역할



9차 『학교밖청소년 교육지원』 협업테이블

일시

2020년 11월 23일 (월) 14:00

진행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사무국(중구 종로 45-4, 3층)

참여자

5명

대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강근모 센터장, 배나현 선생님)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우장한 사무국장, 이재찬 선임매니저, 유은정 매니저)

기록자

유은정(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매니저)



논의 내용 요약

안건1. 2020년 대구시 학교밖청소년 온라인포럼 진행에 관한 논의

- ‘지역문제 연계형 진로탐색’ 또는 ‘지역문제 해결형 진로탐색’의 형태
- 학교밖청소년들의 다양한 진로 경험 가능성 논의 (비영리단체, 사회적기업, 창업 등)
- ‘학습 지원’과 ‘현장 경험’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
- 참가자 구성
- 발제자 검토
- 토론자: 현장네트워크 보유하고 있는 기관 섭외 고려
- 토론자로 참여하는 기관들과는 내년 사업으로의 연계 가능성에 대한 논의 필요

안건2. 기타논의

- 학교밖청소년 진로지원 사업 관련 논의
- 기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인턴십 사업 활용하는 방안
 - 기존 인턴십 사업 : 바리스타, 애견, 제빵 등 단순 노무
 - 구·군에 있는 사회적 기업이나 도시재생센터를 작업장으로 연계하는 방안 검토
 - 인턴십 비용 및 업장 지원금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지원
 - 타 사업과의 연계 가능
- 청소년 주민참여예산 관련 논의
 - 학교밖청소년센터 : 내년부터 논의 예정
- 커리큘럼 제작 관련 논의
 - 프로젝트 형식으로 올해 1차(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내년 2차로 진행
 - 과업 설계 초안: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대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함께 작성

학교밖청소년 배움의 연결고리 '위두랑'

학교밖청소년 교육지원: 학습커뮤니티 위두랑

지난 10월 27일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사무국으로 대구지역 각 구군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선생님들이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학습커뮤니티 위두랑 활용방법에 대한 교육을 듣기 위해서인데요, 교육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양현아 연구원님께서 진행해주셨습니다. 이 날 교육에는 대구지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계신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광주학교밖청소년센터의 선생님들도 ZOOM을 통해 함께 참여해주셨습니다. 현장에 계신 대구지역 선생님들부터 화상채팅으로 참석해주신 광주지역 선생님들까지 모두가 열의를 가지고 참여해주신 덕분에 강의실의 열기는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위두랑'에 대한 소개를 시작으로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위두랑은 'We Do'와 '너랑 나랑'을 합친 말로 교사가 온라인상에서 학습을 개설하여 학생들과 자료를 공유하고, 과제, 토론 등을 진행할 수 있는 온라인 학습 커뮤니티 서비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장기화로 인해 학교밖청소년들이 이전과 같은 교육을 받기 어려워지자,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는 그간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던 위두랑 서비스를 학교 밖 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대상을 확장하였습니다. 교육에 참석한 선생님들은 강의를 들은 후 직접 스마트폰을 이용해 위두랑 클래스를 개설하고 활용하는 실습을 진행해봄으로서 배운 내용을 적용하는 시간도 가져보았습니다.

모든 교육이 끝난 후에는 질의응답시간을 가졌습니다. 직접 실습해보면서 궁금했던 점들을 질문하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선생님들은 '위두랑'에 한 발짝 더 가까워졌습니다. 특히 ZOOM을 통해 교육에 참여해주신 광주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선생님들도 채팅을 통해 함께 소통하며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음날 학교밖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IT교육에서는 청소년들이 직접 위두랑을 활용하여 교육 담당자들과 소통해봄으로서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도 위두랑 활용방법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 재난 상황 속에서도 학교밖청소년들이 학습커뮤니티 위두랑을 통해 한층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100

101



db 대구신문

HOME > 사회 > 지방자치

학교 밖 청소년도 온라인으로 돌본다

윤조혁진 | 2020.10.28 22:00

**대구 지역문제해결플랫폼-KERIS
학생 대상 학습 서비스 '위두랑'
각 구군 꿈드림까지 확장 지원
수업 자료 공유 일정 관리 도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계기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 체계도 강화되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후 정상적인 지원을 받지 못했던 학교 밖 청소년들도 이제 온라인을 통해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대구 지역사회문제해결플랫폼(지역문제해결플랫폼)과 학술정보원(KERIS)은 27일 학교 안의 학생만을 대상으로 제공하던 학습 커뮤니티 서비스 '위두랑'을 학교 밖 청소년에게까지 확장한다고 밝혔다. 대구시와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등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게 대안교육기관 지원, 꿈드림 페스티벌 등 여러 프로그램을 제공해 왔으나,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택배를 통한 자기계발 키트 및 급간식 제공 등 비대면 지원으로 대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지역의제로 선정하고 이를 도움 기관을 찾던 지역문제해결플랫폼과 그간 학교 안의 학생만을 대상으로 제공되던 학습 커뮤니티 서비스 위두랑을 학교 밖 청소년에게까지 확장하려는 학술정보원의 의중이 맞물린 것이다.

지역문제해결플랫폼과 학술정보원은 지난 27일 '학교밖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한 위두랑 연수'를 열고 교사와 학생들이 자료 공유, 과제, 토론 등을 진행할 수 있는 온라인·모바일 플랫폼 '위두랑'의 사용법과 활용방안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대구 각 구·군 꿈드림 담당자 12명이 참석했으며, 광주광역시 꿈드림 담당자 3명이 화상회의 프로그램 '줌'을 통해 자리했다.

조혁진, "학교 밖 청소년도 온라인으로 돌본다", 대구신문, 2020.10.28

학교밖청소년, IT를 만나다

꿈을 잇(IT)다 SW스쿨



지난 10월 28일, 29일 양일간 대구스마트시티지원센터는 <2020 꿈을 잇(IT)다 SW스쿨>에 참여하기 위해 모인 청소년들로 북적였습니다. <꿈을 잇(IT)다 SW스쿨>이란 청소년들에게 직업분야의 체험과 단기간 집중적인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진로교육·창의적 체험활동입니다. 해당 교육은 대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대구스마트시티지원센터,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의 멋진 협업을 통해 탄생하였습니다. 대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교육 대상자를 모집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는 온·오프라인 자원을 연계하여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대구스마트시티지원센터는 교육 장소를 마련하고,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은 이를 연계할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첫째 날에는 <유튜브 크리에이터>와 <코딩>을 주제로 한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교육은 23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아이엠엄빠님이 진행해주셨습니다. 강의를 들은 후에는 청소년들이 직접 영상을 제작해 서로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점심식사를 마친 후, 배금화 강사님의 <코딩>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코딩과 아두이노에 대한 교육을 들은 후, 이를 응용하여 청소년들이 직접 간단한 실험도 진행해보았습니다.



1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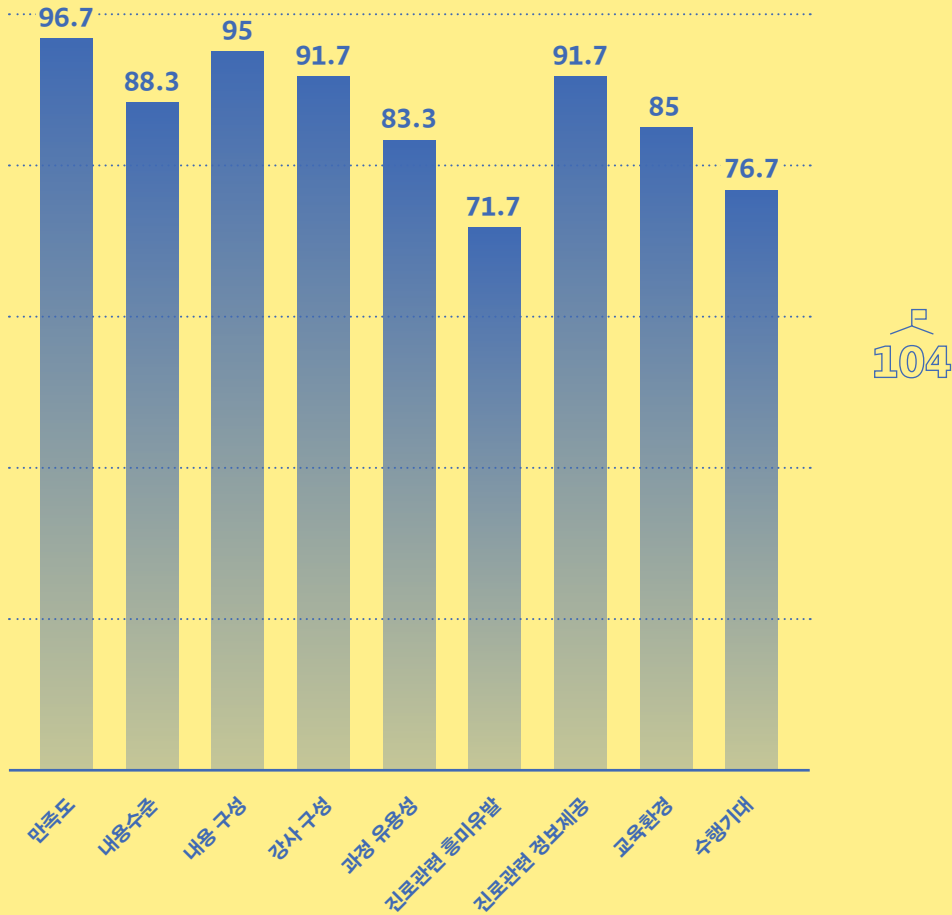
103



둘째 날에는 <포토샵>교육과 <웹툰>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포토샵>교육은 구자익 강사님께서 진행해주셨는데, 차근차근 설명해주신 덕분에 기초부터 응용까지 배워볼 수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배정욱 강사님께서 <웹툰>을 주제로 강의해주셨습니다. 웹툰 제작 과정에 대한 교육을 들은 후, 청소년들이 직접 웹툰을 그려봄으로서 교육 내용을 응용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비록 이틀 동안의 짧은 교육이었지만 청소년들의 진로탐색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학교밖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마련되기를 기대해봅니다. ¶

2020 학교밖청소년 대상 꿈을 잇(IT)다 SW스쿨 설문조사 결과

2020. 10. 29 (목) 교육 종료 직후 참여자 10명 대상 설문조사 실시,
7점 척도 설문지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결과
출처: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104

105

언론 보도



WITH코로나 시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진로교육 실시

박종문 | 입력 2020-11-03 수정 2020-11-03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협업
대구스마트시티지원센터에서 이틀간 진행



영남일보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학교 밖 청소년 25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진로교육-창의적 체험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는 협업을 통해 지난 10월28~29일 양일간 학교 밖 청소년 25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진로교육-창의적 체험활동을 진행하였다.

박종문, "WITH코로나 시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진로교육 실시", 영남일보, 2020.11.03

청소년, AI로 하나 되다

AI기술을 활용한 융합교육

지난 11월 16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본원 4층
미래교육관에서는 <AI기술을
활용한 융합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AI기술을 활용한
융합교육>은 지역상생의
 일환으로 추진된
청소년 진로교육인데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대구·경북지역
청소년 20명을 직접 본원으로 초대하여 진로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교육에는 학교밖청소년들뿐만 아니라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들까지 모두 참여하여
더욱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AI기술을 활용한 융합교육>은 크게 탐색, 학습, 적용 세 단계로 나누어
진행되었습니다. 탐색 단계에서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주제를 탐색해보았습니다.
인터랙티브 AI 퍼포먼스 시연을 감상한 뒤, 청소년들이 직접 일상의 움직임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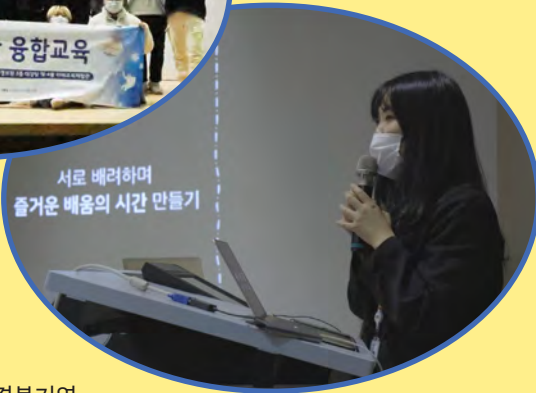
몸으로 표현하였습니다. 학습 단계에서는 머신러닝
체험프로그램과 코드 편집 프로그램을 학습한
후, 이를 직접 활용함으로써 본격적으로
기술과 매체를 배우고 익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 적용 단계에서는
팀을 나누어 움직임을 퍼포먼스로
제작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는데요,
각 팀별로 창작한 퍼포먼스를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교육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서로 배려하며
즐거운 배움의 시간 만들기

1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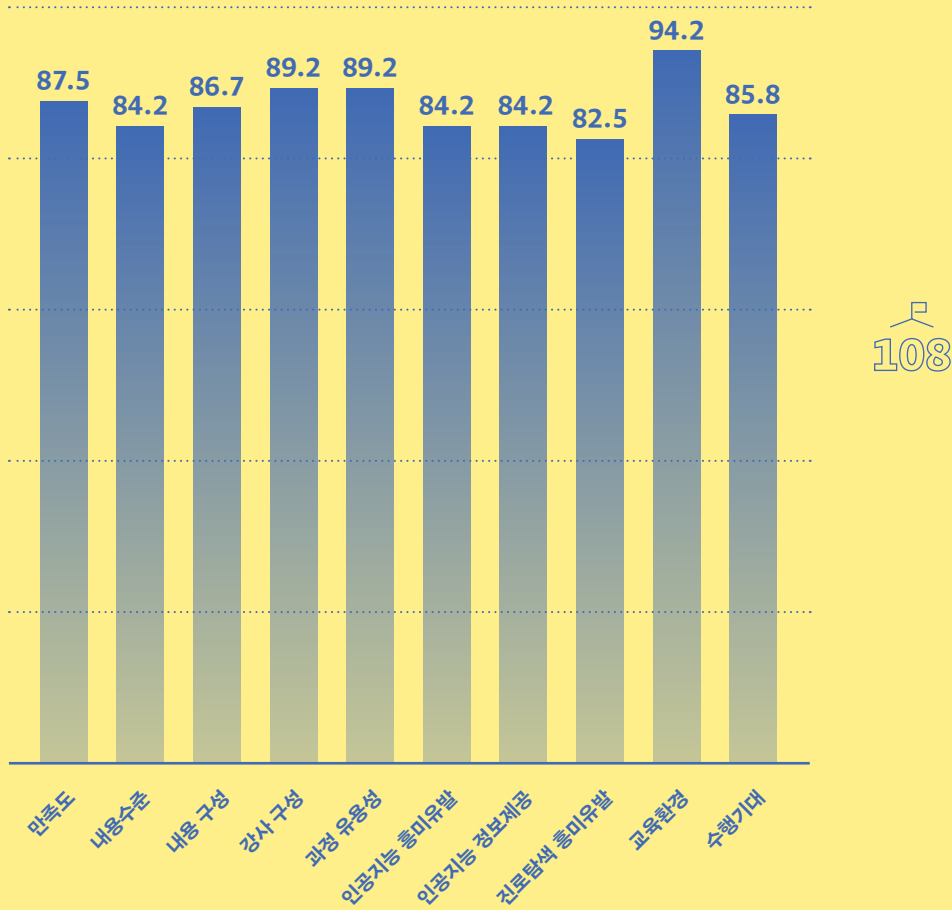
107

특히 이 날 교육은 그간 지역사회의 청소년들이 접해볼 기회가 적었던 인공지능기술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실제 교육 후에 진행된 설문조사를 통해
많은 청소년들이 새로운 것을 경험하여
좋았다는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추후에도 <AI기술을 활용한
융합교육>과 같이 평소 지역사회
청소년들이 접하기 어려운 분야를
다루는 교육의 장이 지속적으로 마련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AI기술을 활용한 융합교육 설문 결과

2020. 11. 16 (월) 교육 종료 직후 참여자 20명 대상 설문조사 실시
7점 척도 설문지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결과
출처: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108

109



인터넷일간신문 e-대학저널

HOME > 교육일반 > 초·중·고 교육

지역상생 실천 앞장...KERIS, 지역사회 청소년 대상 AI 활용 진로교육 실시

장원주 기자 | 승인 2020.11.16 17:13

16일 대구경북지역 청소년들에게 AI기술 및 융합형 체험교육을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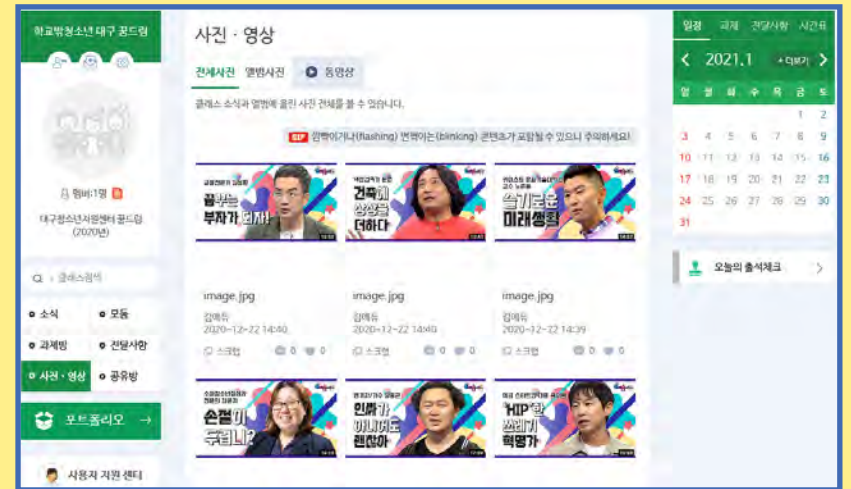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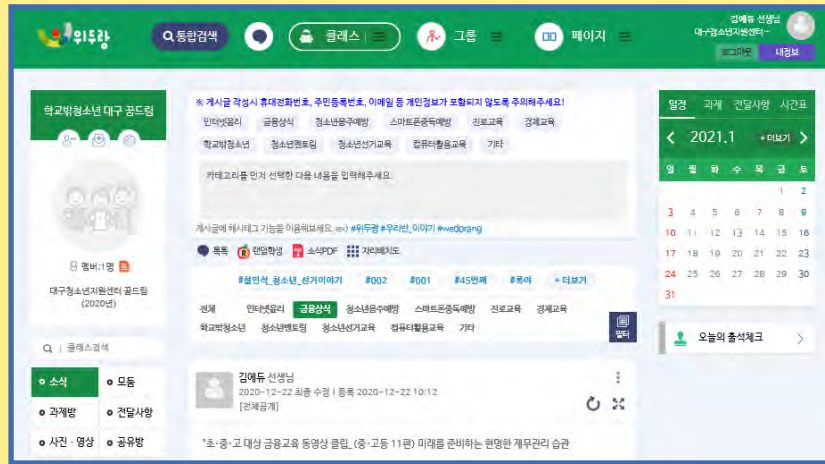
16일 KERIS가 대구경북지역 청소년들에게 AI 기술 및 융합형 체험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현장. 사진=한국교육학술정보원

[대학저널 장원주 기자]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박혜자, 이하 KERIS)은 지역상생 일환으로 16일 지역사회 청소년 대상의 청소년 진로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진로교육은 대구경북지역 청소년 20명을 KERIS로 초청해 ▲인공지능(AI) 기술(머신러닝) 이해 및 학습 ▲프로그래밍된 코드 활용 실습 ▲인터랙티브 AI 퍼포먼스 창작 및 발표 구성의 융합형 체험교육으로 진행됐다. 인터랙티브 AI 퍼포먼스는 청소년의 움직임이 머신러닝기술 및 코딩 작업을 통해 그래픽 퍼포먼스 형태로 나타나는 기술과 예술이 융합된 퍼포먼스를 일컫는다.

장원주, "지역상생 실천 앞장...KERIS, 지역사회 청소년 대상 AI활용 진로교육 실시", 인터넷 일간신문 e-대학저널, 2020.11.16

대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위두랑 클래스 개설



110

111

드디어 학교밖청소년들을 위한 위두랑 클래스가 개설되었습니다. 지난 10월 27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위두랑 활용법 강의를 통해 우리는 위두랑과 학교밖청소년들이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실감할 수 있었는데요., 현재 학교밖청소년들을 위한 위두랑 클래스가 개설되어 우리 학교밖청소년들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위두랑 클래스에는 인터넷 윤리부터 금융상식, 청소년 음주예방, 스마트폰 중독예방, 진로교육, 경제교육, 학교밖청소년, 청소년선거교육, 컴퓨터 활용교육 등 학교밖청소년들에게 유익한 영상 자료들이 매우 다양하게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하루 빨리 위두랑 클래스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오픈되어 우리 청소년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만나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은 대구 지역 학교밖청소년들을 위한 클래스만 개설되어있지만, 향후 전국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위두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적인 협업을 기대합니다.🙏

의제 실행 성과

향후 의제 실행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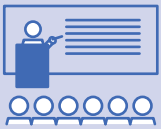









셋. 의제 내다보기



의제 실행 성과

「재난이후 정보(서비스) 격차 해소 : 학교밖청소년 교육지원」 의제 실행을 통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1 학교밖청소년에게 다양한 교육 및 진로체험 제공을 위한 논의체계 구축**
 → 의제 실행 이후 총 13회 논의 진행(의제간담회: 4회, 협업테이블: 9회)
 → 이해관계자 105명 참석, 16개 기관 참여
- 2 논의체계를 통한 시범사업 실행: 학교밖청소년 교육지원 서비스 제공**
 → 진로교육 5회 진행
 (꿈을 잇(IT)다 SW스쿨: 4회, AI기술을 활용한 융합교육: 1회)
 → 청소년 120명 참여
 → 교육콘텐츠 영상 2편 제작
 → 언론보도 6회
- 3 온라인플랫폼(위두랑)의 이용범위 확대:
 학교밖청소년 및 학교밖지원센터 담당자 등**
 → 대구지역 구·군별 및 광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선생님 대상으로 위두랑 활용법 강의 진행
 → 위두랑 테스트 클래스 개설 및 활용
 → 대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위두랑 클래스 개설:
 청소년 교육 영상 232편 업로드

<p>학교밖청소년 대상 진로교육 총 5회 진행</p> 	<p>청소년 120명 참여</p> 
<p>협업테이블 총 9회 진행</p> 	<p>의제 간담회 총 4회 진행</p> 
<p>협업테이블 및 의제간담회 105명 참여</p> 	<p>16개의 기관 참여</p> 
<p>언론 보도 6회</p> 	<p>교육콘텐츠 영상 총 2편 제작</p> 
<p>대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위두랑 클래스 개설</p> 	<p>위두랑 클래스에 청소년 교육 영상 232편 업로드</p> 

향후 의제 실행 계획

「재난이후 정보(서비스) 격차 해소 : 학교밖청소년 교육지원」 의제 실행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①

학교밖청소년의
체계적인
교육지원을 위한
커리큘럼 연구 및
제작

②

온·오프라인
교육 및 진로탐색
체계 구축을 위한
협업기관 확대

③

일경험을 통한
지역사회참여형
진로탐색기회
제공

참고문헌

“코로나19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시설 80% 폐쇄...비대면 지원”,
이투데이, 2020년 11월 17일 수정, 2020년 12월 7일 접속,
<https://www.etoday.co.kr/news/view/1962983>

“코로나19 지원금 소외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
KBS NEWS, 2020년 10월 20일 수정, 2020년 12월 7일 접속,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29709&ref=A>

“코로나19로 유치원·초중고 개학 2주 추가 연기...23일 개학”,
강원일보, 2020년 03월 02일 수정, 2020년 12월 7일 접속,
<http://www.kwnews.co.kr/nview.asp?s=501&aid=220030100157>

“코로나 이후 갈 곳 잃은 ‘학교 밖 청소년’... 사회적 편견, 교육 소외 이중고”,
조선일보 공익세션 더 나은미래, 2020년 09월 29일 수정, 2020년 12월 7일 접속,
<https://futurechosun.com/archives/50891>

의제 가이드북
재난이후 정보(서비스) 격차 해소:
학교밖청소년 교육 지원

발행일
2021년 2월 5일

발행처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기획·글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디자인
스튜디오 플로트(안지경)

주최
행정안전부
대구광역시

주관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의제 가이드북

재난이후 정보(서비스) 격차 해소: 학교밖청소년 교육 지원

학교밖청소년들은 제도권에서 벗어나 있다는 이유로 각종 청소년 정책의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요즘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는 학교 안팎 청소년의 교육 격차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재난 상황 속에서 ‘학교밖청소년’들이 느끼는 교육 격차의 심각성을 인지한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대구청소년지원재단(대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은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에 「**재난 이후 정보(서비스)격차 해소: 학교밖청소년 교육지원**」 의제를 제안하였습니다. — ‘의제 추진 배경 및 목적’ 중에서